

날은 홍범도장군



홍범도 장군
78년만에
고국에 잠들다



날은 **홍범도장군**

VOL. 29

발행인 우원식
 편집인 홍순계
 편집위원장 반병률
 편집위원 김용환, 박석봉, 정광균, 김우진, 항동건, 김현식, 김유림
 발행처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03035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10길 17
 전 화 02)734-8851~2
 팩 스 02)722-0251
 창간일 2014년 8월 15일
 홈페이지 www.hongbumdo.com
 비매품

유해봉환	유해봉환 과정 (편집위)	02
	유해봉환에 대한 감회 (황원섭 부이사장)	06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취재기 (KBS 류지열 PD)	08
	홍범도 장군 추서문 (남양홍씨 홍승연)	11

청산리전투 전승기념식	전승기념식 보훈처장 추모사 (황기철 장관)	12
	이사장 기념사 (우원식 이사장)	13
	남양홍씨 헌문 (홍창기)	15

학술회의	학술회의 총평 (반병률)	16
	특별간담회 참관기 (김경준)	24

독후감공모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편집국)	27
	대상 (박선영)	28
	일반부 최우수상 (강선주)	32
	군인부 최우수상 (조범수)	36

사격대회	제1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편집국)	39
	대회사 (우원식 이사장)	40

감사합니다	회비납부	42
-------	------	----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과정

홍범도 장군께서 순국 78년만에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 유해봉환 일정 |

행 사 명	일 자	장 소	주요 참석자
실무팀 파견	7.28.(수)	인천공항	· 1차 보훈처(1), 현지공관(1)
	8.4.(수)		· 2차 보훈처(1)
	8.10.(화)		· 3차 보훈처(2), 국방부(1) 장례지도사(1), 현지공관 등
파묘 준비	8.10.(화) 전후	크즐오르다 홍범도 묘역	· 실무팀 및 고려인협회
특사단 파견	8.14.(토) 11:30~15:00	서울공항	· 특사단장, 특사단, 수행 및 지원팀
파묘식	8.14.(토) 16:00~16:25	크즐오르다 홍범도 묘역	· 특사단(3), 주카대사(1), 카정부(10), 고려인협회(12)
임시안치 정식입관	8.14.(토)	크즐오르다 주 병원 영안시설	· 장례지도사(1), 의장대(2), 보훈처(1)
유해인수 항공봉송	8.15.(일) 08:30~09:30	크즐오르다 공항 주기장	· 특사단(3), 주카대사(1), 카정부(1), 고려인협회(2)
유해봉 환식	8.15.(일) 20:00~20:20	서울공항 주기장	· 주빈, 특사단(3), 주카대사(1), 외교·국방 장관(2), 보훈처 차장(1)
차량 봉송 임시 안치	8.15.(일)	대전현충원	· 국가보훈처장, 기념사업회 이사장
국민 추모	8.16.(월)~ 8.17.(화)	대전현충원 온라인 추모관	
안장식	8.18.(수) 10:00~10:50	독립유공자3묘역	· 대통령 및 주요인사 30명



- 1 카자흐스탄으로 출발하는 특사단 (14일 서울공항)
- 오른쪽부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 국가보훈처장 황기철, 배우 조진웅
- 2 파묘식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 묘역)
- 3 운구행렬 (고려극장 14일 저녁)
- 4 마지막 제삿상을 준비하고 아리랑을 부르는 동포들
- 5 유해 인수 (크즐오르다 공항)
- 6 공군 호위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 진입 (15일 오후)



- ⑦ 서울공항 도착
- ⑧ 대전현충원으로
- ⑨ 안장식으로 향하는 장군의 유해
- ⑩ 안장식 (대전현충원 제3묘역)
- ⑪ 대한민국장 훈장
- ⑫ 추모사 하시는 문재인 대통령
- ⑬ 하관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에 대한 감회

기념사업회의 10년 숙원이 성취되었다.



황원섭 기념사업회 부이사장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8월 18일 국립 대전현충원에서 개최된 안장식에서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고 강조하고,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에 서로 믿고 의지하며, 위기 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다.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이 대한민국을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 줄 것이다.”라고 추모했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장군께서 1943년 카자흐스탄에서 순국한 지 78년 만에 지난 8월 15일 봉환되어, 8월 18일 전 국민적인 추모 열기 속에 국립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다. 당초에는 작년 독립전쟁 100주년을 맞아, 6월에 봉환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사정으로 연기되다가 광복 76주년을 맞아 모셔 온 것이다. 장군의 유해봉환은 1992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에 수교하면서 논의되었다. 초대 카자흐스탄 주재 김창근 대사가 부임하면서 홍범도 장군의 묘지와 고려극장 등 유적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며, 현지 고려인 동포들과 함께 관리하면서 카자흐스탄 외교부와 봉환문제를 협의했다. 북한에서도 장군의 고향이 평양이라고 이장을 희망하여, 카자흐스탄 정부로서는 남한과 북한의 동시 수교국이라 외교적인 분쟁을 우려하여 유보해 왔다. 장군의 유해봉환은 2005년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가 창립되면서 오랫동안 기념사업회의 숙원사업이었다. 유해봉환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1년이였다. 그해 10월 25일 68주기 추모식을 마치고, 이종찬 이사장이 서면으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유해봉환을 요청했다. “앞으로 남북통합시대에 대비하여 독립운동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를 시급히 고국으로 봉환하고, 독립전쟁의 영웅으로서 합당한 평가와 대우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2013년 기념사업회에서는 순국 70주기를 맞아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처음으로 추모식과 묘지를 참배하고 귀국하여, 보존처에 유해봉환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라고 요청했다.

2014년 6월 박근혜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에 대비하여 당시 외교안보수석비서관에게 이사장 명의의 유해봉환 요청 자료를 전달했고, 2015년 5월 “8·15광복 100주년 기념의 해”의 검토 과제를 상정할 때, 국무총리실에 유해봉환 문제를 제안했다.

2018년 우원식 이사장은 취임한 후 유해봉환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2019년 4월 한국과 카자흐스탄 정상회담 시에 특별 수행원으로 합류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홍범도 장군은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영웅이며, 독립군 총사령관으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고, 내년이면 전승 100주년이니, 유해봉환을 실현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간곡히 제안했다. 이에 대한 토카예프 대통령은 “양국관계와 국민 간의 교류 등을 감안하여 직접 챙기겠다”고 화답했다.

2020년 3·1절 경축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발표하면서 “장군의 유해봉환이 우리에게 국가의 존재가치를 일깨우고, 선열의 애국심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경축했다. 6월 독립전쟁 전승 100주년을 기념하여 봉환하기로 했으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으로 연기되었다. 한편 북한에서는 2020년 6월 23일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하여 “유해는 그의 고향인 평양에 안치되어야 하며, 남한 봉환은 조상 전례의 풍습을 무시한 반인륜적인 행위”라고 보도하고 반대했다. 그러나 한국측에서는 장군은 특정 지역의 인물이 아니고 전 국민의 영웅이기 때문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선이며, 사실상 북한은 카자흐스탄 묘지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하고, 심술 수준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2021년 8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유해봉환을 위하여 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조진웅 국민특사 등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하여 유해봉환을 추진했다. 8월 15일 오후 8시 공군 특별수송기 편으로 우리 영공에 진입할 때에는 공군 전투기 6대가 조국으로 귀환하는 장군을 호위하며 홍범도 장군 유해가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대통령 내외가 최고의 예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직접 맞이하여, 대전 국립현충원 안치하여 이틀 간의 국민 참배를 마치고, 18일 안장식을 거행했다.

8월 18일 대전 현충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장식을 거행하고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한 크즐오르다 현지 장군 묘역에서 채취한 흙과 우리나라 흙을 합토하여 대통령 내외분이 허토하였다. 안장식에는 코로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참석자를 제한하여 기념사업회에서는 안장식 직후 우원식 이사장 주재로 기념사업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해원 조문 행사”를 개최했다. 장순항 여사의 해원 무용이 끝난 후 새로 조성된 장군의 묘지에 참배하며, 고난과 역경의 먼 길을 돌아 110여 년 만에 고국에 돌아오신 장군의 영혼을 추모했다.

홍범도 장군이 순국 78년 만에 귀환하게 된 배경은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추진한 신북방정책의 성과와 대통령의 개인적인 집념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러시아의 영향력이 대단한 카자흐스탄에서 항일무장투쟁의 상징인 홍범도 장군을 국립묘지에 이장한 것은 한반도에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외교적인 성과도 대단하다. 이번 유해봉환으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의 영웅을 잊지 않고 최고의 예우로 보답한다는 국가보훈의 가치를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국민통합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였다.

정부에서는 유해봉환에 맞춰 홍범도 장군에게 애국심 고취 및 민족 정체성 함양 등의 공로를 인정하여 1등급 훈장인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독립전쟁 기념관을 건립하여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국민교육의 광장을 마련한다고 하니, 우리 기념사업회의 영광이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취재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취재기

류지열 KBS PD



국민특사 조진웅

방송 제작하다 보면 소재만 봐도 대략 결과를 예측할 수 있다. “이건 대박이겠다”, “이건 품만 들고 피곤하겠다”, “그럭저럭 때울 수 있겠구나”등등.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같은 행사는 의미는 대단히 크지만 시청자의 흥미는 묶어 두기가 어려운 소재다. 즉 행사는 뉴스 소재지 다큐멘터리 소재는 아니다. 더구나 행사성 다큐는 빨리 방송을 해야함으로 시간에 쫓기기 십상이다.. 그래서 2020년 처음 유해봉환이 결정 되었을 때부터 방송을 끌고 갈 프리젠테가 흥행의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코로나로 유해봉환이 연기되었고 다큐 3부작 제작도 연기되고 말았다. 고민하다 판을 키워 드라마로 제작하기로 하고 준비 중이었다. 그런데 2021년 7월 장군의 유해가 8월 15일 광복절에 봉환된다는 촉박한 일정이 발표되었다. 그때부터 제작팀은 거의 전력을 조진웅 섭외에 공을 들였다. 그전부터 드라마 주연을 제안하면서 접촉은 하고 있었지만 조진웅 정도의 대배우에게 갑작스러운 촬영을 부탁하는 것은 무리였다. 게다가 코로나가 다시 대유행하던 시점이라 더욱 난감한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진웅은 역사적 대의에 공감하고 제작에 동참해 주었다. 덕분에 단조로운 행사의 나열과 식상한 인터뷰로 채워질 뻔했던 입체적인 구성이 가능해졌고 생동감이 넘치는 방송이 되었다.

PD는 보통 프로그램 방영 후 조마조마하게 동료나 주변 사람들의 SNS 반응을 기다린다.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건 망한 것이다. 그런데 방송이 끝나자마자 엄청난 문자가 쏟아졌다. “조진웅이 통했구나!” 나는 쾌재를 불렀다. 공중파 5개 채널, 종편 포함 동 시간 시청률 1위였고 유튜브는 엄청난 속도로 뷰 수가 올라갔다. 조진웅에 대한 칭찬의 댓글이 수천 개가 달렸다. 짧은 일정 탓에 무리하게 촬영해야 했는데도 최선을 다해 PD의 주문에 따라주었고 편집이 빠듯해 늦어진 원고 탓에 더빙하면서 원고를 계속 수정하는 바람에 감정선이 뚝뚝 끊어지는데도 최선을 다해 더빙에 임해준 조진웅 배우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한다.

파묘, 그리고 유해 수습

2000년에 김대중 정부가 국군유해발굴단을 만들어 한국전쟁 후 50년 동안 방치되었던 국군유해발굴 작업을 시작했다. 군인이 수십 년 동안 대통령을 했는데 정작 “빨갱이”라 박해받던 김대중 대통령이 국군



- ① 고려인들이 정착한 시르다리야 강
- ② 크즐오르다 인근 고려인 정착마을
- ③ 특사단 비행기 안 조진웅
- ④ 고려극장을 찾은 조진웅

유해발굴을 시작하는 묘한 상황이었다. 나는 그때 유해발굴 개토제부터 시작하여 한국전쟁 격전지를 군인들을 따라다니며 유해 수습과정을 4개월 동안 취재하여 방송한 적이 있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몇 년 후 “태극기 휘날리며”라는 영화로 제작되었다.

그때의 경험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 취재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제작팀은 봉환 일주일 전에 현지에 들어갔다. 파묘와 유해 수습과정은 역사적 사료라는 판단으로 최고 해상도인 UHD 카메라 3대와 드론, 각종 조명 장비를 준비해 갔다. 그런데 막상 발굴이 시작되자 머릿속에 그렸던 것과 달라 적잖이 당황했다. 가장 먼저 무덤구조가 완전히 우리와 달랐다. 두꺼운 철근콘크리트로 위를 덮은 평장묘였다. 삽으로 조심스레 한 삽씩 파내는 것을 상상했는데 커다란 전기 드릴로 콘크리트를 걷어내는 발굴이라니... 워낙 콘크리트가 두꺼워 최소한의 공간만 걷어내야 해서 그림 만들기가 대단히 어려웠다. 힘들게 두께 20센티의 콘크리트를 걷어내자 습하고 부드러운 흙이 나왔다. 그때부터 작업은 순조로웠다. 카메라 두 대는 작업과정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모조리 찍어대고 한편에서는 드론을 띄우며 촬영했다. 파고 들어가는 공간이 좁아 혹시나 장군의 유해가 상할까? 조마조마했다. 제작진의 마음을 읽은 현지 작업자들은 웃으며 자기들은 고려인 무덤을 많이 발굴해봐서 무덤 구조를 잘 아닌 걱정하지 말한다.

3일 정도 파고 들어가니 기름진 흙과 나무뿌리 사이에서

검게 잘 썩은 관의 파편들이 나왔다. 그때부터 묘역을 깔끔하게 정비한 후 국군유해발굴단이 유해수습을 맡았다. 20년 넘게 쌓아온 노하우를 가진 국군유해발굴단이 수습을 시작하자 조마조마함이 사라졌다.

수습과 모든 공식행사가 끝나고 특사단과 조진웅 배우는 특별기편으로 귀국을 하고 나는 마무리 취재를 하고 들어가야 했다. 그래서 특사 일행을 취재하는 PD에게 대한민국 영공으로 들어가면 공군이 반드시 호위를 할 것이니 절대 잡들지 말고 그 장면을 찍으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쓸데없는 당부였다. 특별기가 우리 영공으로 들어오자 공군은 정중한 안내방송까지 하면서 자체카메라로 기가 막힌 영상들을 촬영해주었다. 이 장면에 많은 시청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댓글을 남겼다. “국뽕”도 이런 “국뽕”이면 얼마든지 환영!

장군의 묘를 지켜온 고려인 농지기들

장군의 묘는 1943년 돌아가신 후 두어 차례 정도 이상 하였다. 2차대전 중에 돌아가셔서 급히 모셨던지 봉분이 많이 무너지자 1951년 고려인 동포들이 힘을 모아 장군의 묘역을 정비하고 비문도 새겨넣었다.

밤에는 호텔 방에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훑어보곤 하였는데 이인섭 선생이 쓴 봉분 정비에 대한 글이 눈길을 끌었다. 장군의 봉분 정비를 마친 1951년 10월 25일, 장군의 기일에 추도식을 드린 후 이인섭 선생과 홍범도 장군의 부하

전우인 심상원, 박성태 (장군의 임종을 지켜 드린 동지다) 세 분이 같이 돌아오는 장면이었다. 그런데 사람은 3명인데 다리는 넷뿐이었다는 구절이 나왔다. 박성태, 심상원 두 분은 1920년대 연해주에서 전투 중에 총탄에 다리 한쪽씩을 잃어버리고 양팔에 목발을 하고 다녔다. 이인섭 선생은 세 사람의 가방을 들어주며 뒤에서 걷고 있는데 앞서가던 심상원 선생이 이인섭 선생에게 “야 우리는 다리가 세 개라서 걸어 다니기 무던한데(편한데) 너는 다리가 두 개뿐이라 얼마나 서럽냐?” 하고 농담을 토했다.

나는 그 장면이 눈앞에 사진처럼 그려지면서 호탕하고 농담도 잘했던 홍범도 장군의 부하들답다는 생각에 애잔한 미소가 동시에 일었다. 드라마 <홍범도>에 이 장면은 꼭 넣고 싶다.

소련 시절 집단농장 “아방가르드” 우리말로 “선봉”은 김만삼의 지도로 전 소련에서 손꼽히는 고려인 집단농장이 되었다. 이 아방가르드 동포들도 장군의 묘역정비 사업에 500루블이라는 거금을 쾌척했다. 그래서 아방가르드는 꼭 취재하고 싶었다. 시르다리아 강변에 자리 잡은 아방가르드는 벼농사를 짓기 위해 건설한 대규모 개척마을이었다. 비록 지금은 영락해서 쓸쓸함마저 있지만 전성기를 회고하는 고려인 할머니의 인터뷰에는 자부심이 넘쳐 흘렀다. 인터뷰 내용은 대략 “아방가르드가 대단히 잘 살았고 여자들을 예뻐하고 남자들은 잘생겼다. 어디를 가도 아방가르드 사람들이 돋보였다” 뭐 이런 내용이었다. 번역을 보면서 “아방가르드 대박이었죠”라는 문장이 딱 떠올랐다. “대박”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사용하기 애매한 용어였지만 장군을 지켜온 고려인 동포의 자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격이라는 생각에 과감히 자막으로 넣었다.



5



6

- 5 호위 비행하는 공군 1
- 6 호위 비행하는 공군 2
- 7 크즐오르다 상징 비아식탑
- 8 고려극장 연극 홍범도



7



8

디아스포라의 슬픔을 위대한 유산으로

10년 넘게 고려인 동포들을 취재하면서 나는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 문학상을 받는다면 고려인 디아스포라를 소설로 썼을 때 가장 수상에 근접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역사에서 디아스포라는 크게 3번 있었다. 첫 번째가 668년 고구려의 멸망으로 30만 고구려 유민들이 중국 내지로 끌려간 사건, 두 번째가 임진왜란 때 20만 양민들이 일본으로 끌려가 노예 시장으로 내몰린 사건, 그리고 조선 말의 고려인 동포의 디아스포라다. 연해주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구소련권 나라들에 뿌리를 내린 고려인들의 역사가 가지는 서사는 어떤 필설로 형상화하기 힘들 정도로 극적이다. 고구려 유민과 임진왜란 포로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다. 모국의 구심력이 약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다행히 지금 대한민국의 역량은 고려인들에게 조국으로서의 구심력이 대단히 크다. 고려인들은 시혜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조국독립세력들의 후손이자 동포로서 연대해야 할 동반자다.

160여 년의 디아스포라를 겪은 고려인 동포들, 조상들이 묻힌 땅, 조상들의 나라, 머나먼 원동, 그 한반도를 낚이라도 가겠다고 무조건 동쪽으로 무덤을 조성해온 고려인들, 홍범도 장군의 무덤을 오랫동안 관리해 온 고려인 동포 김 레프는 취재진에게 장군의 귀환은 고려인 동포 모두의 귀환이라며 장군과의 이별을 기쁘고 낙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했다. 그래서 홍범도 장군의 귀환은 한 독립영웅의 귀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50만 고려인 동포들이 장군과 함께 모국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여정이었다.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홍범도 장군 추서문

홍승연 남양홍씨 남양군파 35대손



- 1 안장식에서 장군의 후손을 대표해 영정을 든 남양홍씨 35대손 홍승연씨
- 2 8월 18일 대전현충원 제3묘역으로 들어오는 장군의 유해

2021년 8월18일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끈 대한독립군 홍범도 장군의 유해 안장식에 남양홍씨 문중 대표로 참석하였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일제강점기 당시 만주와 연해주 등에서 대한 독립군을 조직해 항일무장투쟁을 이끌며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고, 스탈린의 한인 강제 이주정책에 의하여 카자흐스탄으로 강제 이주되어 노동자로 일하다가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78년이 지나서야 조국으로 편안히 안장해드렸습니다.

이번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은 역사적으로 큰 의미와 동시에 과제를 지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애국자는 국가와 국민이 끝까지 보호하고 합당한 예우를 해야한다는 당위성을 실천한 것입니다. 그동안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추모하고 보호했지만 78년 만에 우리의 품으로 돌아와 국민 모두 무거운 짐을 덜게 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6주년을 맞은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다”며 “독립 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봉환을 계기로 우리 독립운동사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자리 잡혔다는 점입니다. 독립운동사는 우리 민족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연구 자체가 미진하고 이념 갈등 때문에 진실이 외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그 피해자이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 장군의 업적을 폄하해 1962년 정부가 독립유공자를 포상할 때 두 번째 등급인 건국훈장대통령장을 추서를 했으나, 문재인정부가 이번 기회에 최고 등급인 건국훈장대한민국장으로 승격시킨 것은 다행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셋째 이번 봉환 과정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은 이들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동포들입니다. 홍범도 장군은 고려인의 상징이며 정체성의 실체로 모셔졌기에 그들의 허전한 심정을 충분히 이해해야 만 합니다. 그동안 현지 동포들이 조성한 공원묘지를 초장지(初葬地)로 공원화해 고려인들의 구심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고려인 3, 4세를 비롯한 재외동포들이 동질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모국과 유대와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산리전투
전승기념식황기철
보훈처장

66 홍범도 장군 순국 78주기 추모식 추모사 99

오늘 우리는 민족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대한독립군 총사령관인 홍범도 장군님의 생애와 위업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제의 폭압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셨던 장군님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저는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계시던 홍범도 장군님의 유해를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우원식 이사장님과 함께 고국산천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이 순국 78년 만에 귀환하신 장군님을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곳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처음으로 추모식을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홍범도 장군님께서 국권회복을 위해 일찍이 의병을 일으켜 무력투쟁의 선봉에 선 항일무장투쟁의 영웅이셨습니다. 특히, 뛰어난 지략과 전술을 가진 독립군 총사령관으로서, 병력과 무기의 열세를 극복하고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대첩에서 대승을 거두셨습니다. 이는 항일 무장 독립운동사에서 가장 빛나는 전과로, 나라를 잃은 굴종과 설움을 씻어 내고 일제에 억압받던 삼천만 겨레의 자부심이자 자주독립의 희망이 되었습니다. 이후 동포들과 함께 중앙아시아로 이주하신 장군께서는 정착 초기 숏한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일구셨으며, 카자흐스탄 고려인 동포들의 정신적 지주가 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 우리는 홍범도 장군님을 비롯한 봉오동 승리의 주역들, 평범한 이들이 조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이야기를 언제나 기억할 것입니다. 또한, 장군님의 묘역을 우리 국민과 후손들이 애국심을 되새기고, 장군님의 고귀한 넋을 기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정부는 장군님과 함께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오랜 세월 장군님 곁을 지켜 온 카자흐스탄 고려인 후손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 장군님 묘역을 기념공원화하고, 홍범도 거리를 조성하는 등 고려인 동포사회의 자부심이 변함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카자흐스탄 거주 독립 유공자 후손과 홍범도 장군 추모사업 유공자 초청을 비롯한 다양한 기념사업을 통해 장군님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카자흐스탄과의 보훈을 매개로 한 교류·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우원식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님과 관계자 분들, 그리고 자리를 함께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 번 홍범도 장군님께 깊은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바치며, 평안한 안식을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리전투
전승기념식우원식
기념사업회 이사장

66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전승 101주년 기념식 축하 99

영웅이 있었다! 대한이 이겼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입니다. 오늘 우리는 독립전쟁 청산리대첩 승전 101주년을 기념하는 역사적인 자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산리 전투는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있는 영웅들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일제에 맞서 당당히 싸워 이긴 자랑스러운 승리의 역사입니다.

홍범도 장군과 김좌진 장군, 그리고 이름없이 빛도 없이 쓰러져간 수 많은 독립 용사들의 애국정신이 가져 온 찬란한 승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뜻 깊은 오늘, 목숨을 바쳐 나라의 독립을 이룬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과 뜨거운 애국심을 가슴에 새깁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강점당했을 때 독립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목숨을 걸고 총칼 들고 싸운 역사가 있느냐로 평가합니다. 프랑스에서 레지스탕스를 강조하는 것도 위대한 투쟁의 역사를 국민들에게 알려 나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도 레지스탕스를 훨씬 뛰어넘는 투쟁의 역사가 있습니다. 민초들은 일본 정규군과 맞서 끊임없이 전쟁을 치렀고, 국내 진공을 위해 수없이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토록 치열했던 독립전쟁의 역사를 국민께 널리 널리 알려야만 합니다. 그리하여 목숨을 바친 독립군과 이들을 지원했던 많은 우리 국민들의 뜻을 대한민국 정체성 한 가운데 세워야 합니다.

청산리 대첩은 우리 독립전쟁 사상 가장 빛나는 전과를 올린 승전입니다. 봉오동 전투가 독립전쟁의 1차 대승리라면, 청산리대첩은 독립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린 독립전쟁 최대의 승리였습니다. 청산리 대첩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오직 일제를 물리쳐야 한다는 연합정신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김좌진 장군이 이끈 백운평 전투는 청산리 전쟁에서의 첫 승리로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높여주었고, 다음으로 홍범도 연합부대가 이끈 완루구 전투에서 400여명의 일본군을 격퇴하며 치열한 전투를 이어 갔습니다. 꼬박 6일 동안 크고 작은 전투가 열 차례나 있었지만 독립군은 10전 10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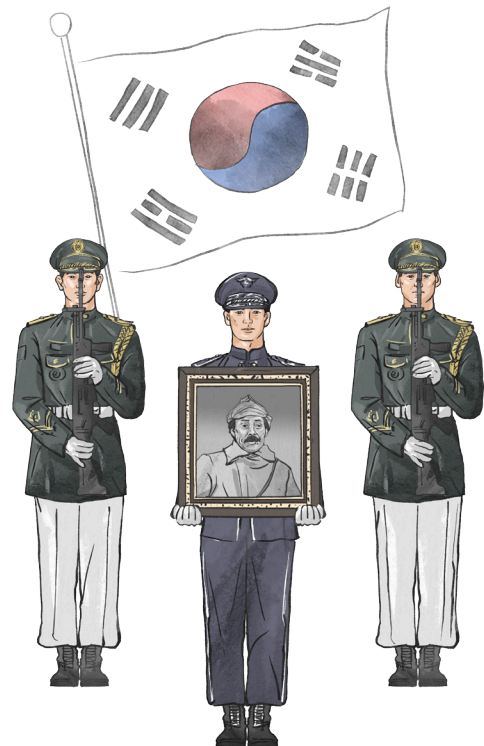
독립을 위해 하나로 모은 마음은 통합된 힘으로 승화되었고, 그 통합된 큰 힘으로 빛나는 승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홍범도와 김좌진 그리고 독립전쟁에 투신한 수천 명의 독립군들은 출신도 노선도 달랐지만 모두가 일제와 싸우지 않으면 안된다는 일념으로 목숨을 내놓고 싸웠습니다. 봉오동·청산리 대첩 101주년을 맞아 눈부신 승리를 위해 희생한 그들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홍범도, 최진동, 이 원, 안 무, 이천오, 강상모, 강승범, 조권식, 그리고 김좌진, 나중소, 박영희, 이범석, 이민화, 김 훈, 백종렬, 한건원, 홍충희, 강화린, 김찬수, 오상세, 김옥현……. 얼마전 만들

어진 현충원 앞 '홍범도로'를 지나 이곳, 홍범도 장군 묘역으로 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홍범도 장군 거리 지정에 애써주신 정용래 유성구청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조국땅으로 돌아오셨습니다. 독립전쟁의 역사가 우리 땅으로 돌아오는 감동의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조국을 떠나 만주로, 연해주로, 중앙아시아까지 흘러가야 했던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근현대사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온갖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철치부심해야 합니다. 선조들의 고난을 뒤돌아보며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강한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독립운동을 제대로 밝히고,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을 한분 한분 기억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이 그 시작일 것입니다.

기념사업회에서는 홍범도, 김좌진 장군과 함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스러져간 무명의 독립용사들을 함께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일제강점기 일제와 싸우는 일에 자신을 낮춰 단결하여 큰 승리를 이뤄낸 선열들의 마음을 다시 새기며, 선열들이 꿈꾸었던 대한민국을 향해 끊임없이 전진할 것을 다시한번 다짐합니다.

다시 한 번 조국광복을 위한 독립영웅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산리전투
전승기념식



홍창기
남양홍씨 종친회



78주기 홍범도 장군님 추모식 헌문

홍범도 장군님의 돌아가신 날을 맞이하여서, 후손된 우리가 장군님을 직접 찾아뵙고 예를 바칠 수 있는 지금의 순간에 밀려오는 심정은, 그간 떨어져 있던 이역만리 머나먼 거리만큼이나 죄송함과 감사한 마음이 뱉차올라 무어라 형언이 불가하나이다.

다만, 거짓의 장막이 하나 둘 걷히며 역사의 시선이 선명해지는 시대의 흐름 속에서 늦으나마 오늘 기일을 맞이하여 장군님의 영원한 은혜를 내 나라 우리 땅에 다시 새길 수 있음에 광대한 숙연함으로 헌문을 드리오니 부디 만족히 받으시옵고 생전 늘 그러하셨 듯 이 민족을 굽어 돌보소서. 나라의 운이 극한으로 불행하던 때에, 영웅이 계셨기에 대한이 이겼던 감격의 순간과극한 결의로 닿아 있는 장군님의 글을 낭독하오니 이 또한 부디 흡족히 받으시옵소서.

< 대한독립군 유고문 >

하늘의 길이 순환하고 민심이 하나가 되어
우리 대한독립을 세계에 선포한 후,
위로는 임시정부가 있어 나라의 큰 일을 이끌며,
아래로 민중이 단결하여 만세를 제창하니
이에 있어 우리는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독립군이 되어 출정하였도다.

탄식하라!
강력한 억압 아래 오직 정의 인도만 외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이요,
고로 가진 것을 내놓고 샅돈을 얻어 무기를 준비하여
최후까지 목숨 걸고 싸우다
굴욕적 항복을 약속함과 같은 경동치 못한 행동은
오직 임시정부의 정당하고 떳떳한 전쟁의 선언을 지연시킴이라
당당한 독립군으로써 포가 쏟아지는 전장에 몸을 내던져
반만년 역사를 광영케 하여 국토를 회복하고
새 자손만대에 행복을 줌이 우리 독립군의 목적이요,
또한 민족을 위하는 근본이라.

2021년 10월 25일. 장군님의 나라에서, 장군님을 면전에 뵈옵고 올리는 첫 번의 추모식에서, 후손 홍창기가 경건하게 고했나이다.



홍범도 장군 서거 78주년 및 청산리전투 101주년 기념 정기학술회의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 총평

학술회의의 기획 의도

지난 8월 15일을 기하여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한반도의 남녘땅으로 귀환하였다.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필자는 1943년 서거 이후 소련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민족의 영웅’ 홍범도의 분묘를 꾸미고 가꾸어온 고려인사회의 헌신과 노력을 잊지 말 것을 강조해 왔다. 다음은 그럴 때마다 소개하곤 하는 일화다.

1943년 홍범도 장군이 사망했을 때 독소전쟁의 와중이라서 크즐오르다 중앙공동묘지에 임시로 조성했던 관개로 홍범도 장군의 분묘는 세월을 거치면서 꺼져 들어가서 참혹한 상태에 있었다. 8년이 지난 1951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한 전우 이인섭, 박성태, 심상원 등과 친우인 전경팔 그리고 레닌기치 신문사(주필 남해룡, 부주필 염사일) 사원 이인 등 동지들이 ‘홍범도 장군 분묘수리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스탈린시대의 살벌한 정국에서 홍범도 장군을 기억하는 동포들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마침내 분묘를 새롭게 단장할 수 있었다.

서거 8주기를 맞이하여 10월 25일에는 크즐오르다 거주 조선인들이 모여 분묘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홍범도 장군에 관한 회상담을 나눈 후 헤어지게 되었다. 홍범도 장군의 전우 박성태와 심상원 그리고 이인섭 세 사람은 사업을 성공리에 마친 후 그동안의 회포를 풀고자 홍범도가 마지막으로 일하던 국영 정미공장 근처 조선인촌의 박성태 집으로 향했다. 박성태와 심상원 두 사람은 시베리아내전의 마지막 단계인 ‘원동해방전쟁’에서 한쪽 다리를 잃어서 좌우에 목발을 잡고 걸었다. 혼자 두 다리가 성한 이인섭은 두 사람의 행리를 걸어 매고 걷고 있었는데, 심상원이 “야! 우리는 다리 셋씩 가지구두 걸어다니니가 무던한데 너는 다리 둘만 가지고서 어찌 서러워 사네!”하고 농담을 걸어 셋이 크게 웃었다는 얘기가. 동지 박성태는 홍범도 장군의 최후 임종 시까지 함께 지냈던 동지로 이인섭에게 과거 홍범도 장군에 관한

많은 회상담을 들려준 인물이다. 이 일화는 이인섭이 박성태의 회상담 등 여러 자료들을 참고로 『정치역사소설 홍범도』를 집필하게 된 계기를 설명하면서 소개한 이야기다.

이 일화를 접하면서 필자는 명색이 역사학자로서 박성태와 심상원과 같이 일반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홍범도 장군의 수많은 동지들을 발굴하고 연구하는데 소홀히 했음을 뼈아프게 반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반성에 따라 이번 학술회의의 전체 주제로 “홍범도와 그의 동지들”을 기획하게 되었다. 1차적으로 한말 의병투쟁기의 차도선, 1910년대 연해주 망명 시기의 최병준, 3.1운동 이후 독립군 활동 시기의 허근과 이병채를 선정하였다. 이에 더하여 특별히 자신의 직접적 체험을 근거로 홍범도 장군의 일상적인 인간적 모습을 형상화한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소설 『아버지와 홍범도』를 발표주제로 선정하였다.

한말 함경도 의병의 동지 차도선

김항기 박사(독립기념관)의 논문 「함경도지역 의병항쟁과 차도선의 활동」은 연변의 조선족 학자 강룡권과 박민영 교수 등 선행연구를 참조하고 새로운 각도에 차도선의 항일운동을 정리한 글이다. 차도선 의병장(1863.1.29.~1939.2.8.)에 대하여는 일찍이 중국 연변의 조선족 학자인 강룡권 선생이 『역사의 발자취-차도선과 그의 후예들』(『장백산』 1월호(1991년)에서 대체적인 그의 생애를 밝힌 바 있다. 1863년 1월 29일 함경남도 북청군 풍산면에서 태어났고, 의병투쟁에 참여하기 전에는 광산노동자, 사금채굴업자, 또는 대한제국 진위대 병사(하사)로 활동했다. 차도선은 홍범도와 함께 한말 항일의병투쟁에 참여한 이후 서간도로 망명하여 항일운동을 지속하였다. 1920년대 이후 30년대까지의 행적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서간도 무송현에서 사망하였고, 그의 아들과 손자 역시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고 한다.

차도선은 1907년 홍범도의 제3차거의시 함께 결의한 14명의 한사람이었고(『홍범도 일지』), 11월의 후치령 전투를 비롯하여 1908년까지 항일의병투쟁을 함께한 동지였다. 차도선은 홍범도보다 나이가 다섯 살 많았으며, 적어도 1908년 3월 17일 일제 헌병대에 일시 귀순하기전에는 지휘계통의 서열에서 상위에 있었던 인물이다.

차도선의 일시 귀순 문제

1908년 2~3월 일제 헌병대와 일진회의 집요한 귀순 공작이 극성을 부리고 있었던 3월 17일 차도선과 태양옥 등이 홍범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휘하의 의병 총 537명 가운데 20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투항하였다. 일제 헌병

대는 약속한 1개월의 무기납입 유예기간을 어기고 무기를 압수하고 이에 저항하는 태양옥을 총살하고, 차도선, 이성택, 김덕순 등을 감금하였다. 2개월 20일 만인 5월 7일 차도선은 탈출하여 홍범도부대에 합류하였고, 인질로 잡혔던 아내와 형 역시 탈출하였다.

차도선의 일시적 귀순은 그동안 차도선이 홍범도에 비하여 덜 주목을 받게 된 여러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김형기 박사는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였다. 김박사는 귀순했다가 재차 적극적인 항일투쟁에 참여한 의병들의 사례들(엄해운, 노공일)을 제시하며, “일제의 귀순을 역으로 이용해 전력을 보존하고 다시 항쟁을 이어가려는(차도선)의 시도는 일견 합리적인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형기 박사는 화승총을 주무기로 삼았던 차도선-홍범도 부대가 조선후기 『병학통』에 나오는 조총운영방법인 『조총윤방도』를 활용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관하여 박민영교수는 토론에서 관련자료의 보완이 필요함을 지적하였고, 실제 산악지역인 함경도라는 지형적 조건에서 산포수 의병들에게 이러한 “예비적, 분업식 형태의 전열이 가능했을까”하는 의문을 제기했다. 신민단 소속의 독립군과 항일빨찌산 활동에 참여한 바 있는 김병하가 남긴 기록에 따르면, 홍범도의병부대가 화약 장약대원(1), 탄알 장탄대원(2), 화승에 불을 다는 대원(3), 조준하여 사격하는 대원(4)의 4명으로 구성된 화승총 사격조로 조직되었다고 썼다. 김박사의 추정이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음을 뒷받침하는 기록이라고 볼 수 있다.(김병하, 『해의독립운동회상기』, 42쪽)



박민영 교수는 토론에서 망명 이후 차도선의 활동과 관련하여 김일성의 회고록(세기와 더불어)에 나오는 차천리(車千里)라는 인물과의 동일인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극로의 「고투40년」과 김정규의 일기에는 ‘차도순(車道淳)’으로 기록된 바, ‘차도선’과 ‘차도순’ 가운데 어느 것이 정확한가 여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홍범도의 최측근 동지 최병준

대한제국 시기 중추원 의관을 지낸 최병준에 관하여는 필자가 「날으는 홍범도 장군」 2020년 가을·겨울 통합호(26호)에서 최병준과 그의 아들 최형식, 최창식(최찬식)을 소개한 바 있다. 홍범도는 의병투쟁과정에서 부인 단양이 씨와 장남 양순을 잃고 1908년 11월 압록강을 건너 서간도, 길림을 거쳐 러시아 연해주로 망명할 때 12살의 둘째 아들 홍용환을 데리고 갔다. 홍범도의 부탁을 받은 최병준은 홍용환을 자신의 친자식처럼 돌보고 교육시켰다.

1919년 말 홍용환과 아들 최창식이 거주지인 추풍 당 어재골에 잠입한 이범윤 소속 독립군 2명을 일탈(일본 밀정)으로 오인하여 암살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범윤 부대에서 홍용환과 최창식을 체포하여 사형에 처한다고 위협하자, 최병준은 두 사람을 암살한 것은 자신이 명령한 것으로 자신의 책임이라며 단층으로 자살하였다.

최병준은 1908년 여름 연해주 의병(동의회)의 국내진 공작전에도 참여한 바 있고, 3·1운동이후에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이동휘와 한인사회당 세력이 조직한 독립군 정

부의 접제원(接濟員)으로도 활동한 독립운동의 거물로 일제침보자료에 유력한 ‘배일적 인물’로 지목되었던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주목받지 못하여 이번 학술회의에서 다른 인물들 가운데서 유일하게 서훈되지 못한 인물이다.

임성욱 박사는 관련 자료들이 한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발표논문 「항일독립운동가 최병준의 삶과 활동」에서 최병준의 삶과 활동을 형상화하였다. 특히 최병준의 출생연도가 자료에 따라 1870년, 1874년, 1875년으로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점, 함북 온성 출신으로 본명이 최학룡(崔學龍)이고 병준(秉俊)은 그의 자(字)임을 밝혔다. 최병준은 당초 이범윤계에 속하였으나 1908년 7~8월 동의회 연해주의회에 참여하여 국내진공전에 참전하였으며, 이후 홍범도를 만나 그의 가까운 동지로 활동하게 된다. 임박사는 국망 이후 최병준의 행적과 활동을 훈준거주시기(1910~1915), 추풍당어재골 시기(1915~1919) 시기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임박사는 최병준이 “독립이라는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이 되는 사상과 신념 자체에 집착하지 않았으며, 자기보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얼마든지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유연하고 겸손한 태도”를 보인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양반 출신으로 중추원 의관을 지낸 ‘보황당파(保皇黨派)’이었지만 이후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말년에는 사회주의에도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것이다.

김도형 박사는 토론에서 연해주 의병의 국내진공전 등

최병준의 의병활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아울러 홍범도와 최병준이 평민과 양반으로서 신분이 크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맡기고 무기 은역을 부탁하고 휴식기에는 농사를 함께 질 정도로 두터운 관계를 맺게 된 계기와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점을 지적하였다. 발표나 토론과정에서 간략히 언급은 되었으나, 연해주 추풍(우수리스크)지역의 대표적인 한인독립군(빨찌산) 부대의 지도자로 활동하게 되는 두 아들, 최형식, 최창식(찬식)에 대한 자료발굴과 연구를 과제로 남겼다.

의병·독립군 지도자 허근과 이병채

발표주제 가운데 홍범도 장군의 유해봉환을 계기로 제기된 논란과 관련하여 각별한 관심을 끈 주제는 세 번째로 발표한 윤상원 교수의 「동지 허근과 이병채의 활동과 홍범도」이다. 이 발표는 학술회의에 앞서 특별간담회에서 집중적으로 논의됐던 자유시참변 당시 간도독립군 지도자들(홍범도, 허근, 최진동, 이청천, 안무, 허근, 이병채)의 활동노선과 행적과 관련하여 여러 쟁점과 연구과제를 남겼다. 유해봉환과 관련한 제반 논란에 대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소 장황한 논평이 되었다.

허근(許根, 1866~1926.2.11.)은 허재욱(許在旭) 또는 망명 이전 허영장(許營將)이라고 불렀던 의병·독립군 지도자이다. ‘재욱(在旭)’은 그의 자(字)로 추정되고, ‘허영장’은 망명 이전에 가졌던 직책(營將)에서 따온 별칭이다. 별칭 ‘허영장’에 대하여 윤교수는 국제공산당(코민테른)에 제출한 1921년 10월 23일 자 양케이트에 허근이 ‘농민’이라고 쓴 것을 근거로 ‘허영장’의 명칭이 북간도 독립군 단체 의군부의 영장이라는 직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했고, 토론에 나선 장세운 박사 역시 이에 동의했다. 이미 1911년에 작성된 일제 첩보보고서에서 허근을 ‘허영장’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있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는바, ‘허영장’은 망명 이전에 허근이 가졌던 직책에서 비롯된 것임이 확실하다.

허근은 함북 무산(또는 회령) 출신으로 1904~5년의 러일전쟁 시기에 이범윤 부대(총의대)에 속하여 회령지역에서 지방 토병(土兵) 2백 명을 이끌고 러시아측 가담하여 일본군과 전투를 했고 이후 항일무장투쟁론을 추구했다. 허근(허재욱)은 1910년대에 일제당국에 의해서 ‘폭도파’의 유력인물로 지목되었고, 특히 제1차세계대전기에는 일본정부가 러시아정부에 추방대상으로 건네준 명단에도 포함될 정도로 항일무장운동의 중심인물이었다.

3.1운동 이후에는 연해주와 북간도의 옛 의병세력을 기반으로 이범윤을 총재로 하여 조직된 대한의군부(의군단)의 전위대 대장으로서 북간도 지역 의군부 부대를 실질적

으로 지휘했던 독립군 지도자였다. 허근의 의군부(의군단)은 1920년 6월 7일 봉오동전투 당시 홍범도의 ‘북로정일제1군사령부’(대한독립군),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국민회가 연합한 3단연합의 북로독군부에 신민단, 의민단 등과 함께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의군부 소속으로 봉오동전투에 참전했던 김재규의 회상록).

허근의 의군부 부대는 훈춘사건을 빌미로 일본이 북간도를 침공하기 직전 러시아연해주·만주 접경지역인 나자구(羅子溝)로 이동하여 최진동의 군무도독부 등 단체들과 대한총군부를 조직한 후 1921년 봄 자유시로 옮겨갔다. 얼마후인 1921년 6월 28일의 자유시 참변 당시 현장에서 희생된 36명 가운데 대부분이 의군부 소속 독립군이었다.

이병채(1875.10.21.~1940.)는 전남 고흥 출신으로 1895년 을미의병 당시 허위와 함께 거의하였으나 허위가 서울로 떠난 후 경기도의 민용호 의진을 따라 관동지방으로 진출하여 강릉을 중심으로 한 관동의병의 지도자로 활약하였다. 이후 서울에 제2차거의(을사의병)를 하고 1913년에 독립의군부 전라북도 순무 중군(巡撫中軍)으로 칙명을 받았으나 만주를 거쳐 러시아연해주로 망명하였다.

1919년 말 러시아 연해주 추풍지역에서 조직된 대한독립군의 참모로서 홍범도(대장)와 박경철(참모)과 더불어 3인 명의의 ‘유고문’을 발표하여 항일무장투쟁노선을 내외에 천명하였다. 이후 대한독립군은 대한국민회의 인적·물적 지원을 받는 군사단체로 ‘북로정일제1사령부’(사령부장 홍범도)의 명칭으로 활동하였다. ‘북로정일제1사령부’는 봉오동전투 직전인 1920년 5월 28일 대한국민회 군무위원회와 최진동의 대한군무도독부가 연합하여 조직한 이른바 3단연합의 대한북로독군부에 참여하였고 이병채는 계속하여 사령부의 참모(부장)로서 봉오동전투에 참여하였다.

자유시참변 이후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의 자기모순적 행적

홍범도의 대한독립군과 청산리전투를 치른 후 서로군정서, 광복단과 연합하여 대한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이후 대한의용군은 북상하여 러중국경지대인 북만의 밀산에서 다시 북로군정서와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또는 대한통의부)을 조직하여 연해주의 이만을 거쳐 1921년 3월 자유시로 들어갔다. 이병채가 소속된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1921년 3월 15일 상해파가 주도하여 조직한 전한군사위원회·대한의용군(사할린특립의용대)에 속하였다가 6월 초 이르쿠츠크파가 주도하는 고려혁명군정의회·고려혁명군에 가담하였다.

윤상원 교수는 그동안의 선행연구성과와 새로운 러시



아자료들을 활용하여 자유시참변이후 허근, 이병채를 비롯한 간도독립군 영수(領袖)들의 행적과 노선을 검토하였다. 자유시참변 3~4개월 여 후 이르쿠츠크로 이동한 허근(허재욱), 홍범도, 최진동, 이청천, 안무 등 다섯 명의 간도독립군 지도자들과 '고려공산당 중앙간부'(국제공산당 고려부)[=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공동 명의로 된 일련의 선언문, 즉 「우리 고려 노동군에게」(1921.9.15.), 「자유시사변에 대한 의병장들의 포고」(1921.10.1.) 「선전서」(1921.11.1.)가 발표되었다. 이들 '선언문'(manifesto)들은 피해자인 상해파측을 비판하고 자유시참변을 정당화하고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의 입장을 대변하기 위하여 작성된 문건들이다. 이들 선언문은 뒤에도 다시 언급하겠지만 이르쿠츠크파가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의 동의없이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허근과 이병채는 늦어도 1921년 10월 22일 이전에 모스크바의 국제공산당으로 파견되고, 곧바로 1921년 10월 25일 자로 된 「한국의병대 대표 허재욱, 이병채」명의로 보고서를 국제공산당(Comintern) 집행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허근과 이병채는 “원동 자유시에서 우리 한국군대를 포위공격하여 1천 8백여 명 군대 가운데 피총살 또 익사 및 종적 불명자 4백여 명 자유시에 피납된 자 561인, 이르쿠츠크에 투옥되자 70여 인에 거의 모두 장교”라며 자유시참변의 구체적인 피해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사상도 고상하고 주의도 방정(方正)하고 행위도 명백한 의병에 일조(一朝)에 불우지대환(不虞之大患)하였으니 이 소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힘이라 통곡 통곡이올시다. 귀 의회정부에서 세계공산이란 대정책을 공포하면서 어찌 한국국민천한 의병에 대하여 이와 같은 무리한 정책을 여(與)하옵나니...유죄무죄를 명백히 선고하심을 절규하노이다.”라며 자유시참변과 그 책임자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강력히 요구하였다.

곧이어 허근과 이병채는 11월 12일 “자유시사변의 원인과 정황을 심의하기 위한” 국제공산당 집행위 상임간부회 산하 한국문제위원회에 출석하였다. 이들 외에 상해파 고려공산당과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양측에서 파견된 대표들이 각자의 입장이 담긴 문건들을 제출하였다. 그리하여 채택된 것이 1921년 11월 15일에 채택된 「제3국제공산당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서」이다.

이 결정서는 자유시참변의 발단이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양 당사자에게 모두 책임이 있다는 양비론을 채택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슈미야츠키의 동양비서부가 이르쿠츠크파만을 편파적으로 원조한 것이 상호충돌을 심화시켰



다고 결론지었다. 그리하여 슈미야츠키의 지시로 구축되어 있는 박애 등 한인부 간부들과 자유시참변으로 투옥된 80여 명의 대한의용군(사할린특립의용대) 군인들에 대한 석방을 요구하였던 것이다. 명백하게 자유시참변에 대한 동양비서부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책임을 지적하였던 것이다.

윤교수는 자유시참변이후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이르기까지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이 취했던 일련의 행적을 일관된 노선 즉, 상호간에 역할을 분담한 “독립군지도자들의 조직적 판단”으로 해석하였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허근과 이병채가 홍범도, 최진동과 더불어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르쿠츠크파의 입장을 비판하고 있는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의 공동명의로 발표된 일련의 선언문들, 홍범도의 자유시참변 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참여(1921.11.28.~30.), 홍범도와 최진동의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1922.1.22.~2.2.) 참여 등 이르쿠츠크파측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행적은, 자유시참변을 비판하고 있는 허근, 이병채의 보고서와 한국문제위원회에서의 증언내용 등과 명백하게 모순·상충된다.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토론자로 나선 장세윤 박사 역시 이 문제를 지적하였다. 허근과 이병채가 한편으로는 자유시참변의 가해자인 이르쿠츠크파를 옹호하는 선언문들에 간도독립군 지도자들과

공동명의로 참여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에 자유시참변 당시 유혈사태를 가져온 책임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국제공산당 집행위 한국문제위원회에 피해자측을 대표하여 증언한 자기모순적인 행위가 이해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윤교수가 허근과 이병채가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석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는데, 이들은 대회에 어떤 자격으로 참가했는지를 질의하였다.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장 슈미야츠키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기만행위

다행스럽게도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자기 모순적 행적을 설명할 수 있는 문헌이 남아 있다. 1922년 2월, 즉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직후에 최진동, 홍범도, 김동한 3명이 (러시아)공화국 군사혁명위원회 참모총장과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 앞으로 보낸 보고서이다. 이에 따르면,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장 슈미야츠키는 1921년 10월말 이르쿠츠크의 고려혁명군(고려여단)에 편입되어 이르쿠츠크에 머물고 있던 허근과 이병채 두 사람을 자유시참변의 정당성을 증언토록 하기 위하여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에 파견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허근과 이병채가 자신의 뜻과 다르게 국제공산당 한국문제위원회(1921.11.12.)에서 자유시참변에서 한국독립군(의병)들을 희생시킨 자유시참변에 대한 책임을 밝혀줄 것을 요구

하자, 슈미야츠키는 두 사람을 이르쿠츠크로 소환하였으며, 예정되었던바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고려혁명군 대표로 참석할 수 있는 권한도 박탈하였던 것이다. 허근과 이병채가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참석하였다는 윤교수의 추정은 성립하기 어렵다.

두 번째로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의 명의로 발표된 일련의 선언서는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고려혁명군정의 회가 상해파와 전한군사위원회-대한의용군측에 자유시참변의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작성한 후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으나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동의 없이 명의를 도용하여 발표했다는 것이다.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이 국제공산당 동양비서부장 슈미야츠키와 이르쿠츠크파의 독단적 행위 등 자유시참변에 대한 전모를 파악하게 된 것은 「국제공산당 집행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서」(1921.11.15.)의 내용을 접하게 된 이후의 일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국문제에 관한 결정서」에 따라 고려공산당 연합간부로 선임된 이동휘와 홍도가 국제공산당의 결정서를 휴대하고 모스크바로부터 이르쿠츠크에 도착한 1921년 12월초 이후이다.

1921년 9월 이후 간도독립군 지도자 5명이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과 공동명의로 발표된 일련의 선언서 발표(이르쿠츠크, 1921.9.15., 10.1., 11.1.), 허근과 이병채의 보고서 작성(1921.10.25.)과 국제공산당 한국문제위원회 출석(모스크바, 1921.11.12.), 홍범도의 자유시참변 책임자(피해자)들에 대한 재판 참여(1921.11.28.~30.) 등은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이 자유시참변의 책임문제 등에 관한 국제공산당의 공식적 입장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일어난 일들이다.

1921년 12월 자유시참변의 전모를 파악하게 된 상황에서 이들 간도독립군지도자들은 자유시참변에 관하여 일치된 목소리를 내게 된다. 즉, 간도독립군의 영수들을 포함한 지도자 27명이 1921년 12월 14일 자로 상해파 간부인 김동한에게 ‘전로혁명군최고군정의회 당국’, ‘전로공산당 중앙총회 검(찰)부 당국, 제3국제공산당 집행부 당국’과 “자유시에서 참변당한 사건”과 조선혁명계획에 대한 협상(협약)의 전권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이 위임장에서 서명한 간도독립군 지도자들은 최진동(전 총군부 부장), 홍범도(사령관), 허재욱(대대장), 이청천(대대장)를 비롯하여 채영(참모장), 이병채(참모장) 등 27명이다.

이 위임장의 존재를 통하여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에 고려혁명군 대표로 참석한 홍범도와 최진동이 대회 참가 이전에 이미 자유시참변에 대한 진실을 파악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문금동의「아부지와 홍범도」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에 관한 일고찰」을 발표한 김현주 교수는 2018년에 고려인 작가 문금동의 「아부지와 홍범도」를 학계에 처음으로 소개한 학자이다. 7, 8세기 조선을 배경으로 한 문금동의 다른 작품 「인정루」는 2014년 러시아의 역사학자 타치야나 심베르체바 교수와 한국의 임경화 교수의 논문 「고려인 작가 문금동과 그의 장편소설 「인정루」 소개 및 시론적 고찰」에 의하여 소개된 바 있다. 김현주 교수 역시 2017년 이후 2021년까지 「인정루」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한 네 편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고려인 작가 문금동(1912~1992)은 러시아 연해주 푸칠롭카(육성촌) 출신으로 1937년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어 우즈베키스탄과 타지키스탄 등지에 끌호즈(집단농장) 등에서 노동자로 일하였다. 문금동은 바이올린을 잘 연주했으며 밤마다 마을사람들에게 한국의 고담(古談)을 들려주곤 했던 이야기꾼이었다고 한다.

1960년 벌목 노동 중에 다리를 다쳐 보행이 힘들게 되었고 1963년 타직스탄으로 이주하였고 집필후 22년만에 장편소설 「인정루」를 탈고하였다. 문금동은 1986년 한국 문학전공자인 모스크바 소련과학원 동방연구소의 콘체비치박사에게 「인정루」의 출간을 부탁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집필후 30여년만인 2017년에서야 우여곡절을 겪고 한국에서 아홉 권으로 출판된 대작이다.

문금동의 두 번째 작품인 「아부지와 홍범도」는 「인정루」 집필 후인 1984년~1987년의 기간에 집필되었다. 김교수는 “고려인 문단에서도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인 문금동 작가가 “어릴 적 일을 잊을 수가 없어 쓰지 않을 수 없었던 절박한 마음을 담아 누가 읽어줄지도 모를 글을 자필로 정성스레 써 내려갔다”고 소개했다. 토론자인 임경화 교수 역시 토론문에서 “작품의 출판-유통 시스템 속에서 독자를 만난 적이 없는 ‘독자 없는 작가’인 문금동의 작품은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 소련 고려인 한글문학의 비극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생전에 자신의 작품이 출판되어 일반 독자들에게 읽혀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작가의 작품이 역사적 조국인 한국에서나마 간행된 것이 그나마 다행이다.

김교수는 「아부지와 홍범도」가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에 의존한 소설이긴 하나, 상당한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소설 속에서 아버지 문승열의 친구로 나오는 “독립군 혈성단 사령관 허승환”은 실제로 러시아 연해주 남부 수이푼 지역에서 활동했던 솔발관 한족공산당군대(“우리동무군”, “공산주의군”)에서 대

대장-특립대장 등으로 활동했던 실재 인물이다. 작품에 등장하는 “조선사람 중 제일간다는 부자” 박승관 역시 「홍범도 일지」에도 기록되어 있는 실재 인물이다.

소설 「아부지와 홍범도」의 지리적 무대가 되는 솔발관은 두 번째 발표논문의 주인공인 최병준이 거주했던 당어재골(신길동)과 마찬가지로 중러접경의 산간지역에 위치했고 빈농들의 마을인 여호인 마을이었다. 문금동의 출생지이자 그의 가족이 거주했던 푸칠롭카(육성촌)에는 러시아 연해주를 불법 점령했던 일본 헌병대 분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김현주 교수는 「아부지와 홍범도」가 가진 기록문학으로서의 가치를 지녔다며 “연해주의 지리, 환경적 특징과 함께 고려인의 민간생활사를 엿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홍범도 장군의 인간적 면모를 형상화한 “독자없는 작가”의 작품

「아부지와 홍범도」에서 작가 문금동의 아버지 문승열은 독립군부대와 연락하며 일본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독립군과 지원자들을 숨겨주고 그 때문에 일본군에 의해서 고초를 당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김교수는 아버지 문승열이 “민간에서 활동하는 솔발관군대의 일원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김교수는 문승열이 “단순히 대의적인 일에 충실한 인물일 뿐 아니라” “정많은 사람”으로 형상화되고 있다고 보았다.

아부지와 결의(決意)한 형님 동생 사이인 홍범도 역시 “전설적인 독립군대장이기 전에 이처럼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줄 아는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부지와 홍범도 두 사람의 인간적인 면모를 통해서 “독립의 정당성, 당위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고”있다는 것이다. 다시말하여 독립운동이란 “이데올로기나 혁명 구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회복, 그리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는 인간에 실현에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키는 일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품을 읽다보면 아부지가 살고 있는 추풍의 육성촌에 홍범도가 찾아온 시기가 언제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이에 대하여 김교수는 홍범도가 3.1운동 전후 북만주 밀산을 떠나 1919년말 대한독립군을 조직하고 북간도로 넘어간 어느 시기로 추정하는 것 같다. 이 시기는 「홍범도 일지」에 기록된바, 홍범도가 추풍 당어재골의 최병준집에 기거하며 농사를 짓고 있던 때이다.

김교수는 작품에 묘사된 아부지와 홍범도의 모습은 바로 “나라를 잃고 떠도는 가혹한 이주의 삶 속에서 인간애를 나누며 붉은 군대와의 연대 속에 항일운동을 혁명운동으로 전환해 가는 고려인의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임경화 교

수 역시 이러한 모습이 고려인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발표자의 의견에 동의하였다. 다만 이러한 고려인의 정체성이나 “고려인 사회의 긍정적 변화에 대한 기대”라는 “희망의 메시지”의 의미, 그리고 문금동의 문학세계의 특수성을 객관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도 전달되지 않는 소련 고려인 한글문학의 비극성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임경화 교수는 문금동의 창작활동 혹은 고려인들의 문학을 한국문학이나 북한문학이라는 틀로 수렴될 수 없는 독자성을 지닌 전개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고려인문학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김교수 역시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면서 여러 측면에서 논의하여 고려인문학의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홍범도가 어떻게 여러 영웅중의 한 명에서 ‘고려민족의 상징’으로 될 수 있었나?

끝으로 임경화 교수는 홍범도가 “고려인들의 항일투쟁을 대표하는 인물”로 부상하게 된 전후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항일투쟁 과정에서 크게 활약한 수많은 지도자들 가운데서 “비교적 정치와 인연을 끊은” 홍범도는 운 좋게 대숙청을 피해 생존할 수 있었고, 1940년대에 태장춘의 연극 <홍범도> [정확하게는 <의병들>]이 상연되면서 “고려인 사이에서 ‘고려민족의 상징’으로 그 위치를 굳히게 된다”는 것이다. “대숙청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통해서 홍범도는 ‘여러 영웅 중의 한명’에서 ‘고려민족의 상징’으로 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문금동에게 홍범도는 상징적 인물임과 동시에 공산당도 인정한 안전한 인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임교수의 이 제안은 문금동의 글쓰기와 관련하여 제기된 것으로 도발적인 ‘수정주의적’인 비판으로서 ‘민족의 영웅’이라고 당연시해온 홍범도의 역사적 위상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의 근본적인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부지와 홍범도」는 1960년대 소련의 한글신문 「레닌기치」에 연재되어 고려인사회에서 널리 읽혀졌던 김세일의 「소설 홍범도」와 비교하면 고려인사회에 전혀 소개되지 못했던 작품이다. 문금동이 「아부지와 홍범도」를 통하여 홍범도의 인간적인 면모를 잘 형상화했다면, 김현주 교수는 “독자를 만난 적이 없는 독자없는 작가” 문금동의 문학적 세계를 잘 소개했다고 볼 수 있다.

문금동의 두 작품 「인정루」와 「아부지와 홍범도」는 사후 20여 년만에 작가의 역사적 조국인 한국에서나마 출판되었으나 한국의 독자들에게는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아부지와 홍범도」는 독립운동의 정당성 뿐만아니라 민초들의 사랑을 받는 홍범도의 인간적인 모습을 잘 그려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일독을 권하고 싶다.

차도선, 최병준, 허근, 이병채 등 홍범도의 동지들을 주제로 한 이번의 학술회의를 통하여 한말 항일의병, 1910년대 독립전쟁 준비, 3.1운동이후 노령 연해주와 북간도지역에서의 독립군 활동 그리고 자유시침변이후 행적 등 홍범도의 제반 활동이 다른 각도에서 새롭게 조명되었다. 이러한 학술적 작업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기를 바란다.





특별간담회 참관기(홍범도 장군 유해봉환의 의미와 평가-언론 왜곡보도에 대한 진상규명)

그 누가 영웅의 귀환을 모독하는가?

김경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과정)

2021년 8월 15일,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이 서거 78년 만에 고국 땅 대한민국으로 귀환했다. 장군의 유해를 모신 특별수송기가 장군의 후예인 대한민국 공군 전투기들의 호위를 받으며 하늘을 날아 귀환하는 장면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감동적이었다. 어찌 나만 그랬으랴. TV 생중계로 장군의 귀환을 지켜보던 국민들 대부분이 나와 같은 뭉클함을 느꼈으리라.

그러나 장군의 귀환을 마냥 고운 시선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유해 봉환 전후로 일부 언론 매체나 극우인사들을 중심으로 ‘홍범도는 빨갱이’, ‘자유시 참변이라는 동족학살에 가담한 홍범도에게 훈장 수여와 현충원 안장은 불가하다’는 등 차마 입에도 담기 힘든 참람한 언사를 쏟아내는 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장군을 이제야 고국에 모시게 된 것도 참으로 민망한 일이건만, 다른 누구도 아닌 한국인들의 입에서 이런 불경한 말들이 쏟아지는 현실이 참담할 지경이었다.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한 온갖 추측과 낭설이 퍼지는 것을 지켜보며 나는 기념사업회나 학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시급함을 느꼈다.

자유시 참변 당시 홍범도 가담? “근거 없어”

지난 10월 29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특별간담회는 이러한 세간의 의혹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에서 급하게 마련된 자리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황원섭 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부이사장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계기로 이념적인 틀과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 홍범도 장군을 왜곡·편향하는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비일비재했다”라며 “기념사업회 차원에서 오해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만주·러시아 지역 독립운동사 연구의 권위자인 반병률·장세운·윤상원 교수 등이 참석해 항간에 떠도는 각종 유언비어에 대해 집중적인 팩트체크를 진행했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자유시 참변 당시 홍범도 장군의 역할이다. 자유시 참변은 1921년 6월 28일, 러시아 자유시(스보보드니) 인근의 수라제프카 일대에서 고려혁명군(이르쿠츠크파)과 대한의용군(상해파)의 대립으로 빚어진 동족상잔의 유혈사태로 한국독립운동사상 가장 큰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극에 홍범도 장군이 고려혁명군 소속으로 가담하여 상대방인 대한의용군에 대한 학살을 주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상원 전북대 사학과 교수는 “항간에는 자유시 참변 당시 홍범도 부대가 무장해제를 주도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역사적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해당 주장을 일축했다.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 당시 학살에 가담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당시 홍범도 장군은 통곡하고 슬퍼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라며 홍범도 장군이 자유시 참변을 주도한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분명한 역사왜곡임을 주지시켰다. (이는 최계립이 김세일에게 보낸 편지에 언급되는 내용으로 최계립은 당시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볼 필요가 있다)

또 자유시 참변 이후 포로가 된 대한의용군 병사들의 재판에 홍범도 장군이 참여한 것에 대해서도 “홍범도 장군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행한 선택이었지만 독립군의 어른으로서 가장 올바른 방식이 아니었을까 한다”라며 부득이한 선택이었을 것으로 해석했다. 즉 감옥에 있는 옛 동지들에게 관대한 판결을 내리는 등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참여했다고 본 것이다.

한편 반병률 한국외대 사학과 명예교수는 자유시 참변 당시 한인무장부대들이 직접적으로 무장해제에 참여한 것 같지는 않다고 주장했다. 무장해제를 주도한 것은 非한인들로 구성된 외부 군대들이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그는 “자유시 참변 당시 홍범도 장군에게는 결정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당시 이르쿠츠크파의 후원자였던 코민테른 원동비서부의 책임자 슈마츠키가 자유시에 집결한 한인무장부대의 지휘권을 장악하면서 고려혁명군으로의 통합을 결정한 것이었으므로 홍범도 장군이 이에 동의하고 말고할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거치면서 통합적인 지휘부가 없는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던 간도 지역 독립군들은 마침 슈마츠키가 코민테른의 권위를 빌려 독립군 통합을 지시하니 그에 따른 것”일 뿐이라며 홍범도 장군은 독립군의 통합이라는 대의(大義)에 공감하고 함께 했을 뿐, 무장해제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반 교수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1922년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종료 후 홍범도가 김동한·최진동과 함께 소비에트 러시아 군정위원회 앞으로 제출한 항의문을 들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홍범도 장군은 “자유시 참변은 슈마츠키를 비롯한 이르쿠츠크파의 엄중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다.

홍범도 장군의 꿈 “고려 독립”

홍범도 장군이 1927년 소련 공산당에 입당한 행적을 두고 ‘공산주의자’라며 일방적으로 매도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반병률 교수는 홍범도 장군이 공산당에 입당한 것은 맞지만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산주의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더 일찍 입당하지 않고 군이 1927년에 가서야 입당한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신념이 있어서라기보다는 소련에서 생활하면서 최소한의 안정적 생활을 보장받기 위한 수단이었을 것으로 본 것이다. 반 교수는 “홍범도 장군의 당시 나이가 60세인데 연금을 받기 위해 이력서를 쓴다거나 소련 공산당에 입당하는 일련의 조치가 이뤄진다”라며 “이러한 행위들은 소련에 사는 일반 주민들이 모두 하는 일상적인 생활에 불과한 것”이라고 공산주의자 논란을 일축했다.

윤상원 교수는 홍범도 장군이 원동민족혁명단체대표회 당시 제출한 조사표(양케이트)를 소개했다. 조사표에서 장군은 대회의 참가 목적과 희망을 ‘고려 독립’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윤 교수는 장군의 답변이 함께 대회에 참가한 다른 공산주의자들의 답변과는 구별이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예컨대 훗날 조선공산당 책임비서가 되는 김재봉의 경우 참가 목적과 희망을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공산주의를 희망함’으로 표기하고 있다. 윤 교수는 “대회에 참석한 공산주의자들은 대개 공산주의를 희망한다고 답변하고 있다”라며 홍범도 장군이 고려 독립만 명확히 하고 공산주의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를 공산주의자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한편 장세윤 성군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수석연구원은 봉오동·청산리 전투 당시 홍범도 장군의 공로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도 봉오동 전투 당시 이른바 ‘삼단연합’의 한 축이자 통합 독립군 부대의 사령관으로서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다는 점, 청산리 전투 당시 독자적인 전투 외에도 김좌진 부대와 연합한 어랑촌 전투 등을 통해 결정적인 승리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홍범도 장군이 양 전투에서 세운 공이 지대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라며 독립전쟁에서의 홍범도 장군의 역할과 공헌을 재평가했다.

이날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황 부이사장은 “홍범도 장군은 카자흐스탄에서도 공산주의 활동이 아닌, 우리 동포들에게 독립정신과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던 철저한 민족주의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라며 “남북이 분단된 상황에서 현재의 시각으로 독립운동가들의 업적을 평가하면 문제가 있다.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파적 색깔로 평가하지 말고 독립운동 그 자체만을 가지고 역사의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 이어져야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도 활동하고 있는 나는 홍범도 장군에 대한 세간의 오해를 바로 잡기 위한 차원에서 이날 간담회에서 오간 이야기들을 정리하여 곧바로 <오마이뉴스> 기사로 보도했다. 그러나 장군에 대해 악의적인 비난을 쏟아내던 이들은 여전히 낱선 댓글로 반응하며 진실을 외면하려 애쓰고 있었다.

이를 보며 나는 한 번 왜곡된 진실이 퍼지면 이를 바로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여실히 느끼며 앞으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간담회가 일회성으로 그칠 게 아니라 꾸준히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나 이날 간담회에서는 자유시 참변 전후로 홍범도 장군의 행보를 명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료들이 많지 않다는 어려움이 토로되기도 했다. 따라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사료 발굴과 연구 역시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역시 한 사람의 역사학도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진실을 바로잡는 노력에 동참할 것을 다짐해본다.

① 황원섭 부이사장 사회/ 반병률, 장세윤, 윤상원 교수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기념 소설 <나는 홍범도> 독후감 공모전 수상자

응모 편수 | 총 157편

1차 심사 : 10월 4일 ~14일 / 기념사업회 김용환, 박석봉 교수

2차 심사 : 10월 18일 이한열기념관 (송은일 작가, 반병률 교수, 박은희 편집장)



대 상

「나는 홍범도」를 읽고 : 박선영 / 주부



최우수상

중등부(보훈처 장관상) : 윤채원 / 청계중 3학년

고등부(보훈처 장관상) : 허경서 / 예당고 3학년

대학부(기념사업회 이사장상) : 서예나 / 서울여대 4학년

국군장병(국방부장관상) : 조범수 / 제2작전 사령부

일반부(기념사업회 이사장) : 강선주 / 주부



우수상

여다영, 정수인, 최나윤, 김은아, 박기태, 김동화, 박선영, 정지원, 고예준, 정지운, 이승진, 이상진, 황경하, 김대상, 김준경, 박상준, 김영삼, 홍은수, 김진환

주최 |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후원/협찬 | 국가보훈처



「나는 홍범도」를 읽고

대상 / 박선영(주부)



하늘이 구름을 잔뜩 머금더니 이내 숨눈을 뿌린다. 부시실 부시실.
 자신을 향해 와락 달려들 듯 안기는 이국(異國)의 한기를 품으며
 한 사내가 등을 보이고 선 채로 기꺼이 눈 속에 갇힌다. 꿈이라도 꾸는 것일까.
 한참 동안 미동이 없던 그는 우는 듯 웃는 듯 복잡한 사연을 묵묵히 삼키며
 켜켜이 쌓인 시간의 주름을 펼쳐낸다. 그리고는 마침내 웃는다.
 뽀뽀 얼어붙은 공기를 허무는 온화한 목소리로.
 ‘이리 씩씩하게 자라주어 고맙구나, 아가.’
 긴 시간을 넘어 오늘을 사는 우리의 머리를 사랑스럽게
 어루만지는 손길이 희미하지만 깊다.
 거친 손이 봄처럼 따뜻한데 웬일인지 가슴은 묵직하게 아려온다.

홍범도, 이제 그 이름을 떠올리면 마음도 따라 일렁인다. 하지만 「나는 홍범도」를 읽기 전까지만 해도, 홍범도라는 인물은 내게 가까이하기에는 너무 먼 존재였다. 그는 인적·물적 열세가 지닌 한계를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극복해 독립군에게 승리를 안겨준 사람, 몸을 사리지 않고 누구보다 솔선수범하여 선봉에 서서 전장으로 뛰어드는 사람, 일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는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포착해 자신을 포함한 동지들 모두를 구해내야만 하는 사람, 의병대의 기강을 중시하면서도 돌아갈 집이나 기다리는 이가 있는 이들에게는 죄책감이나 미안함을 갖지 않고 떠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한편 구국 의병 전사로서 싸워온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라며 조용히 마음까지 토닥여주던 영원한 대장. 타고난 전략가적 기질과 인간적인 리더십을 지닌 홍범도라는 인물의 면면은 우리 민족의 영웅 그 자체였다.

그러다가 지난 8월 15일 카자흐스탄에 묻혀 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순국 78년 만에 고국으로 모셔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방송으로 지켜본 유해 봉환식은 그 자체로도 감동적이었지만, 100세를 목전에 둔 대한광복군 출신의 애국지사께서 깨끗한 자세로 경례를 올리며 홍범도 장군을 맞이하는 모습에서는 말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먹먹함이 밀려왔다. 나라를 위해 싸운 이들의 유대감은 이렇듯 오랜 세월을 넘어서고 생과 사가 갈려도 여전히 강하게 이어져 있어, 그들에게 있어 장군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장군이었다. 그 시대를 살지 않았던 우리도 어느새 군복 입은 독립군들 사이에서 그들의 시간을 잠시나마 공유하며, 홍범도라는 인물에 대해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틈틈이 사회자가 홍범도 장군의 생애를 요약해주었지만 그 정도로는 부족했다. 무엇이 그를 목숨을 건 의병 활동에 나서게 하였는지, 장군으로서만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생은 어떠했는지, 홍범도 장군에게 의병은 또 의병들에게 홍범도 장군은 어떤 의미였는지, 독립을 맞이한 조국에 기쁘게 손을 흔들며 돌아오셨어야 할 장군은 왜 그 머나먼 카자흐스탄으로 가야 했는지. 많은 것들이 궁금했던 차에 「나는 홍범도」를 만났다.

시대가 빈손에 총을 들리고 모두가 꿈꾸는 새로운 역사의 선봉 역할을 맡게 했을 뿐, 가족이 그리워 서럽고 사랑을 알아 가슴 벅차고 든든한 우정에 감사하고 때론 미안해하는 홍범도라는 인물은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며 아버지이고 또 동지였다. 세상에 태어나 첫 숨을 내자마자 어머니를 잃은 갓난아기, 눈앞에서 절벽 아래로 사라진 아비의 마지막을 지켜본 아홉 살 어린 아이, 뜻도 모르는 병법서 문장을 읽고 홀로 설레며 전율했던 15살의 소년 군졸, 백성을 귀히 여겨야 하는 군인으로서의 소임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상명불복의 죄를 저지른 19살의 청년, 그 자신 살인범이 되어버렸음에도 남은 공장 일꾼들의 처지까지 살뜰히 살피고 떠난 무진, 쫓기듯 살아온 인생을 뿌리내리게 해준 이옥영과 금강을 잃은 여천에게, 그리고 매일 이기기 위한 전투의 선봉에 섰던 홍 대장. 마치 여러 개의 삶이 한 사람의 인생에 응축된 듯 너무나 서럽고 고독하고 굴곡진 세월이었다.

하지만 그는 쉬어가는 법이 없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괴롭다고 울부짖으며 주저앉지 않고 주어진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자신을 갈고 닦았다. 나이를 속여 군졸 시험에 합격한 뒤로는 훗날 의병 활동의 근간이 된 사격과 군사 전략에 대한 실력을 쌓고, 진정한 힘은 사람을 지키는 데 쓰여야 한다는 마음을 다졌다. 종이공장에서도 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에도 자신의 뒤통을 아픈 부모님을 봉양하는 어린 일꾼에게 안길 만큼 어려운 때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대한 관심과 애정을 견지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를 잃어 삶의 의지를 잃었을 때 만난 의성 스님을 따라 신계사에 거하는 동안에는 글눈을 뜨면서 그토록 읽고 싶어 했던 「손자병법」을, 선 무도 수련을 통해 몸으로 평정심을 찾는 법을 깨쳤다. 큰 뜻으로 뭉친 의병대가 와해되거나 연합에 실패했을 때에는 잠시 멈추어 다시 한 번 세상과 사람에게서 배워가는 일에 몰두했던 그였다. 그를 보며 그만하면 충분하다고 그 이상 잘할 수 없었다고 감히 위로하고 싶어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만큼, 그는 즐거운 일에서도 그렇지 않은 일에서도 항상 배움을 얻고 스스로를 발견시켜나갔다.

‘눈 내린 벌판을 갈 때, 모름지기 어지러이 걷지 말 일이다.
오늘 내가 간 자취를 따라 뒷사람들 발길이 이어지리니.’

누구보다 외롭고 고된 삶 속에서도 매순간 치열했던 그는 언제나 이기는 싸움을 했고 승리했다. 조선의 승리였다. 하느님도 임금도 영웅도 구제하지 못한 나라를 그는 같은 뜻을 품은 사람들과 힘을 모아 스스로 하느님과 임금, 영웅이 되어 일어났다. 호시기에 쫓기듯 살아왔던 지난날에서 호시기를 쫓는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겠다고 결심한 이후 그는 자신이 맡은 소임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현실적으로 당장 독립이 불가능함을 모를 리 없었다. 일군 부대 몇몇을 소탕한다고 해서 조선 땅에서 일군을 철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사실도 자명했다. 돌이켜보면 그는 자신이 사는 동안 나라의 독립을 보리라 다짐한 적이 없다. 진정한 승리는 오늘의 전장이 아닌 끝끝내 조국의 독립이 오는 날이었으니. 조선 사람 모두가 각성하게 하여 독립 의지를 이어받은 누군가가 독립의 기쁨을 맞이해도 그것으로 되었다. 그러므로 그는 언제나 오늘의 승리만 생각했고 지더라도 물러서지 않았다. 다만 그들은 독립을 위한 투쟁을 계속함으로써 그 시기를 앞당기려고 한 것이다.

또한 그가 의병들의 연합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그리고 갈수록 의병 활동의 입지가 좁아지는 탓에 점점 더 고국과 멀어져야 했을 때도 독립의 의지를 꺾은 적이 없었다는 사실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그는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 다른 이의 행복을 빼앗은 일제로부터의 독립을 넘어 더 큰 의미의 독립을 꿈꾸었다. 그것은 신분제와 관리들의 부정처럼 조선을 갈라놓고 백성들의 삶을 곤궁하게 만들며 더 나은 세상으로의 발전을 방해하는 과거의 폐단과 부정으로부터의 단절이기도 했다. 그리하여 그는 누구라도 의병에 지원하는 사람들을 받아들였고 능력에 맞게 전투원과 비전투원으로 배치하여 서로 간에 차등을 두지 않았다. 군이 말로 하지 않아도 하는 일이 다를 뿐 모두 다 의병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싸운다는 사실을 의병 대원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 또한 다른 의병대와 연합해야 할 때에는 주어진 직함이나 처우에 연연해하는 법이 없이 같은 뜻을 펼치는 데에만 집중했다. 생각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연이은 승전보를 올리던 그는 끝내 조국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머나먼 타국에서 눈을 감아야 했다. 안타까운 일이다. 하지만 고국을 떠난 지 78년 만에 동지들과 함께 그리던 자유와 평화가 공기처럼 흐르는 대한민국으로 돌아온 그는, 비록 몸은 재가 되었어도 영혼은 즐거워 ‘끝내 끝끝내 이겼다’고 노래를 부르리라.

학창 시절 나와 친구들은 한국사라는 과목은 그야말로 높은 산이었다. 당장 코앞에 닥친 일에도 허둥지둥하게 되는 좁은 식견으로 까마득한 선사시대부터 오늘날 현대까지 훑는 방대한 작업은 시작하기조차도 겁이 날 만큼 방대해서 막막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고비는 일제강점기, 특히 국내외 독립 운동 단원이었다. 이유는 단순하다. 지역마다 단체나 독립군의 수는 셀 수 없이 많고 수시로 조직도 이름도 바뀌어, 고작 10년간의 독립 운동 활동만으로도 다른 한 시대의 암기 분량을 넘어서기 때문이다. 그 시절 국사 선생님은 난감해하는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채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짧은 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역사의 흔적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잃지 않기 위해서, 국권을 뺏긴 후에는 잃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투쟁했다는 뜻이라고. 마법처럼 선생님의 그 한 마디에 종이와 글자에 가려졌던 조상들의 희생과 헌신이 보였으면 좋았으련만 철없는 후손 아이들은 선생님의 깊은 뜻을 차마 헤아리지 못했다. 그저 외울 내용이 많아 벅차다고 불평불만을 터뜨리는 후손들을 보며 우리 조상들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을지 지금 돌이켜보면 부끄럽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그 시절 치열했던 역사의 무게를 조금은 가능할 수 있는 나이에 이르렀다. 홍범도 장군이 1895년 동지인 김수협과 철령에서 첫 승전보를 올린 지도 100여 년의 시간이 지났다. 조선은 빛을 되찾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거듭났고 강산도 사는 모습도 달라졌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문제를 지니고 있다. 그 중에는 홍범도 장군이 생전에 고민했던 부정부패와 차별, 불공정에 대한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는 자신이 낸 길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길 기대하리라 믿는다. 그 옛날 풍산과 함경도 포수들처럼 오른 팔을 길게 뻗었다가 가슴팍으로 끌어당기며 홍범도 장군에게 답할 차례이다.

짧은 인생이지만 우리는 모두 양심과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더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물려주어야 할 우리 세대의 책임을 기억해야겠다. 위로와 격려, 응원과 감사, 공정과 정의, 배려와 존중, 신뢰와 희망처럼 세상에서 가장 향기롭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품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나는 홍범도>를 읽고. - 해후, 그 이야기

일반부 최우수상 / 강선주(주부)



군악대원의 첼로 선율을 타고 흐르는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Auld Lang Syne) 연주곡은 비장했다. 78년 만의 '장군의 귀환'이다.
76주년 광복절, 조국의 독립을 위해 평생 치열한 삶을 살다가
일제 패망을 2년 앞두고 머나먼 이국 카자흐스탄에서 서거한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식이 서울공항에서 거행되었다.
2년 전 보았던 영화 '봉오동 전투'에 등장한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위용을 기억한다.
결기가 느껴지는 배우의 연기와
이번에 최초 공개된 장군의 생전 영상이 오버랩 되면서
나의 가슴에 장엄한 파문이 일었다.

총 472페이지 스물 두 개의 이야기로 꾸러진 소설 <나는 홍범도>는 그 전월에 소용돌이를 일으켜 격랑을 만든다. 특히 눈, 코, 입이 없는 책 표지의 홍범도는 강렬한 인상으로 다가온다. '날으는(나는) 홍범도'의 별호를 얻을 만큼의 대담무쌍한 홍범도 장군의 얼굴 위로 겹치는 수많은 얼굴들. 그것은 과거 항일의 족적을 남긴 이 땅의 무수한 홍범도와 앞으로 대한민국을 지탱해갈 미래의 수많은 홍범도의 형상이 아닐는지. 그렇다면 손에 이 책을 쥐고 있는 나도 한 명의 자랑스러운 홍범도이고 싶다. 열린 이미지의 표지가 참 신박하다.

먼저 장군의 연보를 읽고 나서 이야기로 눈을 돌렸다. '막다른 세상'에 이른 한 사내가 서 있다. 벅속 아이와 아내의 손을 놓치고 상실한 채 홀로 남겨진 인간 홍범도를 만나는 첫 장면이다. 갈 곳이 없어 막막한 이를 보니 백창우 시인의 <길이 끝나는 곳에서 길은 다시 시작되고>라는 시 한 편이 떠올랐다. 앞으로 다시 시작될 홍범도의 길은 어떠할지 따라가 보기로 했다.

'홍범도의 자료를 읽는 동안 연신 가슴이 뛰었다'는 작가의 소회가 너무나 이해된다. 허구적 영웅담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현대적으로 살려내야 하는 책임감이 창작의 동력이 됐을 터. 실존 인물인 장군의 지난(至難)한 삶을 연구하고 그 자료에 의지하여 소설 속의 극적 인물로 그려내기 위해 고심했을 작가의 사계절, 그 시계 바늘은 얼마나 무거웠을까.

고조부 홍경래의 뜨거운 피를 이어받은 한 사내는 조실부모하여
머슴살이와 삭발승으로 사고무친(四顧無親)의 삶을 산다.

그러다가 만난 사랑하는 아내와 수많은 동지들과의 연대는 '대일 항쟁의 거대한 물결' 위에서 공존한다. 스물일곱 동갑내기 김수협과는 사냥꾼과 약초꾼의 만남을 이루고, 서로 동병상련하며 협력하고 의지하는 가운데 의리를 뛰어넘어 애국의 대의명분으로 동지결의를 한다. 그리고 '호랑이 밥이 될 것인가 호랑이가 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호시기에 쫓기듯 살아온 세상 살이'에 대한 전면전을 선포한다. '조이고 뒤틀린 운명'을 이겨내는 탁월한 선택이다.

그 후, 이미 위태한 운명임을 알고도 들어서는 많은 '불나방들'과의 연계는 계속된다. 하찮은 '쟁개비'들이 모이고 엉기면 불이 되어 타올라 '삶'이 된다. '혼자보다는 둘이 나를 겁니다'라고 말하는 김수협의 홍범도를 향한 전적인 신뢰는 이심전심의 힘이 되어 전투를 치를 때마다 누군가는 죽을 수 있고 그 누군가가 자신일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쳐내게 한다. 이 둘은 서로가 '홍 대장-김 부대장'의 존중의 연합을 이루어 '외세 진압, 민족 존엄의 회생, 자주국방'이라는 '부귀영화와 반대로 가는 길'로 의기투합한다. 편하게 살 수 있는 술한 길 대신 선택한 반일, 항일, 척일의 투쟁의 길은 후손들의 나라를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이뤄낸 장엄한 역사이다.

철령전투, 원산포구전투, 맥패장골전투에서 봉오동전투, 청산리전투로 이어지는 많은 전투 장면은 그 자체로 영화의 시나리오 같다. 마치 흑백 영사기 필름이 살아 움직이듯 작가가 생생하게 그려낸 이야기를 독자들은 빠른 호흡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모든 전투는 적의 공격을 능히 막을 수 있는 방어로써 나아가 적을 이길 수 있는 공격으로써 승리하는 것'의 구체적 실현이다. 참으로 실제적인 묘사요, 서사다. 간교하고 교묘하고 극악한 일본군을 응징하는 독립군의 태세와 지략에 절로 감탄하게 된다. 8,000수의 일본군을 대적해야 하는 42수의 의병들. 제아무리

직접 호랑이 굴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이들이지만 ‘미친 것들(일본군)을 대하는 의병들이 결코 미치지 않으면 안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들이라고 해서 어찌 두렵지 않았겠는가. 왕의 나라 조선이 대한제국이 되고 아무리 신문물이 들어서서 사람과 환경이 변했을지라도 이들의 변치 않는 민족 사랑은 과감하게 ‘정의’를 향해 돌격하는 ‘거스름’의 반어적 삶을 택하게 한다. 이들에게는 물러섬 없는 진격만 있다. ‘같이 나오든가 함께 스러지든가’, 이들에게는 선택이란 없고 그저 실행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애국이라는 같은 목적으로 모였어도 ‘아래로부터의 의견’은 목살되는 불통의 모순이 여전히 잔존하는 전근대적 상명하복의 위계적 공동체 호좌의 진에 홍범도는 실망하기도 한다. 불평등, 불공정의 부당함이 ‘불쌍하고 약한 내 형제 자매’에 대한 헌신과 배려, 사랑이 실종된 우둔한 결과를 초래함을 목도하게 된다. 매우 가슴 쓰라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상 유의미하게 기록되고 이미 영화로도 형상화되어 우리에게 뿌듯한 감격을 선사한 봉오동전투는 홍범도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족적이다. 그 위세는 생사를 함께하는 동지들과 더불어 그 위태와 두려움을 모른 채, ‘태극기와 횃불, 폭탄과 총’이 어우러진 고래등 능선의 전투로 이어졌고, 드디어 ‘청산이 소리쳐 부르는’ 아비규환의 전장 속으로 돌진했다. 홍범도가 이끄는 연합독립군과 김좌진이 이끄는 북로군정서의 3,000명의 대한독립군이 5,000명의 일본 정규군을 이긴 승리의 현장 청산리. 어랑 분지를 채우는 울부짖음과 군악대 소리, 너털너털해질 때까지 싸우고 싸웠던 투사 독립군들의 천지를 진동케 하는 함성은 1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현재의 ‘대한 독립 만세’의 외침으로 메아리가 된다.

호시기 열 마리 잡을 사람’인 홍범도의 정의로움과 용맹함은 인간 본연의 따뜻함과 순수함에 기반하는 것 같다.

그는 내 나라와 민족, 이웃과 벗을 아낄 뿐만 아니라 임신중의 아내와 태중의 아이를 애달프게 그리워하는 남편이요, 아비인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이다. 무진년생 동갑내기 아내 이옥영은 부모를 단명시키고 아우를 막는 팔자라 하여 버려진 인생이다. 홍범도는 역적의 자손이자 떠돌아다녀야 하는 살인자로서 도망자 신세이다. 이 꼬이고 맺힌 두 인생들의 아픔은 눈물을 공유하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된다. 아내 이씨는 지아비와 헤어진 6년간에도 ‘의병대를 이끌고 눈 내린 벌판을 반듯하게 걸어가고 있을’ 반려자 홍범도를 늘 그리워했다. 그녀는 이미 의병대장 홍범도를 ‘여상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으로 예우하는’ 의병 전사이자 동지였다. 또한 남편 홍범도가 남모르게 소지했던 ‘육혈포’는 아내의 손에서 아들에게 이어짐으로써 천륜의 동지애를 느끼게 하는 표징의 의미를 담아낸다. 아내를 사랑한 지아비를 끝까지 보좌하다가 고문으로 스러진 아내 이씨와 홍범도의 아들이기에 운명적인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큰아들 용범의 삶을 애도한다.

또한 홍범도는 ‘사람을 끄는 힘’을 가졌다. 그 힘으로 의병의 구심점이 되었고, 대원들은 영웅의 운명을 타고난 홍범도를 자발적으로 따르고 좋아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흘러 그가 유해가 되어 우리 곁에 돌아온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를 좋아한다. 6척 2치의 홍범도는 우리에게 9척 대장의 존재로 각인되어 ‘홍 대장이 가는 길에는 일월이 명랑한데 왜적 군대 가는 길에는 비가 내린다’는 노래에 저절로 소리를 모으게 한다. ‘내 겨레붙이들이 사는 곳, 술한 동지들이 기꺼이 충구

앞에다 스스로를 내세워 죽음을 끌어안은 곳. 그리하여 풀처럼 눕는 곳. 나 또한 누울 곳. 여기 언제나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있을 조국’에 드디어 돌아온 홍범도는 영원한 우리의 대장이다.

우국지정의 공통분모로 동거동락한 김수협 부대장의 비명과 김백선 선봉장의 참형 앞에서 슬픔을 억누른 채 죽음을 받아 안을 각오로 ‘만민이 평등해질 조선’을 위해 싸워야 할 명분을 짊어졌던 홍범도. 나는 과연 그가 감당했을 고뇌를 얼마나 이해할 수 있을까?

‘거대한 파랑을 타고 흔들리는 폭풍 속에서도 무수한 민초들의 찾아들지 않는 갈망이 응집된 열기’는 고요히 뜨거우나 쉽게 식지 않았을 터. ‘항상 춥고, 덥고, 배고프고, 헐벗고 고될지라도 나라를 되찾겠다는 간절한 의지와 불굴의 용기를 가진 자들’의 연대는 그들이 목이 터지도록 불렀을 <대한독립군가>의 맥락을 통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해진다. ‘구국일념 독립 전사 어디 있나. 어디에 있나. 여기 있지. 나 있지. 우리 있지.’ 우리가 지금 발 딛고 숨 쉬며 살아가는 이 땅을 지켜 내기 위해 만주, 연해주, 간도를 넘어 저 멀리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으로 흘러가기까지 곳곳이 버틴 여천 홍범도를 나는 과연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가?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조국으로 봉환될 때 ‘올드 랭 사인’의 곡조에 맞춰 부른 애국가를 지금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리운 옛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이 곡은 어릴 때 함께 자란 친구가 오랫동안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을 때의 기쁨을 노래한다. ‘시간은 슬픔을 풍화시키지만 시간이 풍화시키지 못하는 건 기억이다’는 구절처럼 그가 했던 말들, 지었던 표정과 웃음, 행동은 그것이 비록 빛바랜 흑백일지라도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력 있는 기억으로 남아 있기에 78년 만의 만남이 더 애절하다.

2021년 가을, <나는 홍범도>를 통해 ‘우리는 여기 대접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주인으로, 주체로 온 것’이라며 전장의 동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오로지 나라 구하는 일에 몰두했던 인간 홍범도를 만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어 참으로 감사하다. 자신의 스승인 심삼술 노인이 죽기 전에 미처 대접하지 못했던 ‘흰 밥’을 우리 민족, 후손에게 ‘독립의 감동’으로 대접했던 우리의 진정한 대장 홍범도. <나는 홍범도>를 읽으며 해후한 ‘나의 홍범도, 너의 홍범도, 우리의 홍범도’를 잊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언젠가는 카자흐스탄 크질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거리에서 그의 또 다른 이야기를 꼭 듣고 싶다.



조국의 해방을 이루리, 끝내 끝끝내 이기리

국군장병부문 최우수상 / 조범수(제2 작전사령부)



국가보훈처에서 운영하는 공훈전사사료관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독립유공자 공훈록」을 볼 수 있다.

공적 조서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기관의 공적 및

주요활동의 역사적 사실을 전문가의 집필을 통해 발간되는

이 공훈록은 민족의 국권 수복을 위해 투쟁하고 희생된

순국선열(殉國先烈)과 애국지사(愛國志士) 16,685명을 기록한다.

작가는 이 끝없이 이어지는 이름 중 164페이지,

순번 16310인 홍범도 장군의 일대기를 그린다.

작가는 지난해, 올해가 봉오동 전투 100주년이 되는 해라는 사실을 접하고, 자신이 홍범도 장군에 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음을 실감하며 관련 자료를 찾아본 것이 이 책을 집필하는 계기였다고 말한다. 그렇다, 이 책은 홍범도 장군의 삶을 이야기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그를 기억하는데 더 의미 두었다. 책의 부록으로 실린 연보가 그 사실을 입증한다. 독자는 홍범도 장군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읽는 것을 넘어 그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며 일제 치하 빼앗긴 조국에서 살아가는 한 남자의 인생을 기억한다.

따라서 본 책은 인간 홍범도가 의병 생활을 시작하기 전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부모를 어릴 적 잃고 아홉 살부터 머슴살이를 한 홍범도는 15살 임오군란이 일어난 해, 나이를 속이고 나팔수로 입대했고, 군을 나온 후 제지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하다 강원도 고성군 외금강에 있는 신계사를 찾아 중이 되었다. 의병을 시작하기 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홍범도 장군의 모습과는 다른 그의 과거를 되짚으며 우리는 외롭고 삶의 풍파를 맞으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청년의 삶을 엿볼 수 있다.

홍범도는 맥파장골에서 같이 살던 심 포수의 죽음 후, 그와 알고 지내던 최 포수로부터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듣고 의병의 길을 걷기로 했다. 최 포수는 말했다, 내 부모 형제, 처자식이 호시(호랑이) 앞에 놓여 있는걸 알았다고 치면 가만있을 수 있냐고. 죽든 죽이든 쫓아가야 하지 않겠냐고. 마찬가지로 조선 땅에 조선 사람으로 사는데, 왜놈들이 쳐들어와서 총질해대면, 우리도 왜놈들을 향해서 총구를 겨눠야 하지 않느냐고. 홍범도가 의병 생활을 시작한 이유에는 조국 해방, 대한 독립과 같은 원대한 목표는 없었다, 어릴 적부터 혼자서 타지를 전전하며 사회의 제일 낮은 곳을 맴돈 청년이 의병 생활을 시작한 이유는 단순했다. 조선에서 조선 사람으로 살기 때문이다.

이 책은 홍범도 장군을 입체적으로 표현한다. 홍범도는 조선의 영웅이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애국심 하나로 뭉친 의병들을 이끄는 장군이고, 조국을 위해 지아비의 역할을 희생한 가장이다. 홍범도 장군은 의병 활동을 하면서 큰 고민을 안겨준 문제들은 일본군의 숫자도, 그들의 횡포도 아니고 자신을 바라보는 의병들의 지탱하는 식량과 총탄을 확보할 수단이고, 그의 가족의 희생을 알면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의병대장의 책임이었다. 이 책을 통해 백발백중의 사격 실력을 갖춘 조선의 '나는 호랑이' 홍범도 장군의 아픔과 인간적인 고민을 함께하면서 그에 대한 독자들의 존경심은 더욱 높아진다. 그 또한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고, 투쟁을 선택한 그의 희생을 간접적으로 체감하기 때문이다.

1920년 6월 7일, 항일 독립군 연합부대가 일본군을 상대로 첫 승리를 거뒀다 기록되는 봉오동 전투에서 홍범도 장군은 북간도의 국민회 계열 독립군과 연합해 북로 제1 군사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전투를 지휘했고, 적 사상자 200여 명의 전과를 올리고, 아군 전사자는 15~16명을 내며 독립군에 길이 남을 역사를 썼다. 101년 후, 2021년 8월 15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서거 78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다. 노태우 정부 시절부터 추진했던 봉환 계획은 30년여 만에 결실을 보게 됐고, 독립을 위해 한평생 헌신한 의병 장군은 현충원 제3 묘역에 안장되었다. 해방된 조국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이 살아 계셨다면 어땠을까? 그는 아마 동고동락한 전우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조선군 군가를 불렀을 것이다.

춡고 덥고 배고프고 험벗고 고될지라도
일제강도 무찌르고 우리나라 되찾으리, 꼭 찾으리.
간절한 의지 불굴의 용기로 싸우리, 빛나리.
끝내 끝끝내 이기리. 끝내 끝끝내 이기리.

‘나는 홍범도’는 단순히 의병대장 홍범도의 영웅담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닌 인간 홍범도의 삶을 통해 일제 치하 명운이 다해가는 조선에서 한 국민으로서, 그리고 의병대 대장으로서의 정신과 기개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책이다. 술한 어려움 속에도 투쟁하는 홍범도 장군의 고뇌와 용기는 사랑하는 사람과 조국,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군인들이 읽고 분발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한다. 조선 땅에 조선인으로서 나의 나라를 지키고, 의병대 활동을 하며 한치의 부끄럼과 타협 없이 자신의 절개를 끝까지 지켰던 홍범도 장군을 보면서 나는 군인정신과 애국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제1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우승자

주 최 |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주 관 | 대한사격연맹

후 원 | 국가보훈처

참가규모 | 80개팀 240여명

(전반기 국가대표 선발전 2개 대회 중 최고기록 랭킹 30위)



권총

구분	이름
남자 시니어	1위 임호진(한국체대)
	2위 방재현(동국대)
	3위 성윤호(한일장신대)
여자 시니어	1위 황성은(임실군청)
	2위 서효정(미추홀구청)
	3위 유현영(서산시청)
남자 주니어	1위 이원재(환일고)
	2위 김두연(정선고)
	3위 김강현(전북체고)
여자 주니어	1위 추가은(IBK기업은행)
	2위 양지인(서울체고)
	3위 김예슬(전남체고)

소총

구분	이름
남자 시니어	1위 박성현(서산시청)
	2위 정재승(창원시청)
	3위 공성빈(우석대)
여자 시니어	1위 조은영(청주시청)
	2위 금지현(경기도청)
	3위 이은서(서산시청)
남자 주니어	1위 김용근(한국체대)
	2위 강민혁(경남대)
	3위 오준영(한국체대)
여자 주니어	1위 정한결(한국체대)
	2위 전상현(경기체고)
	3위 권은지(울진군청)

제1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대회사



우원식 이사장



제1회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에 참가하신 사격 선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입니다.

이번 대회를 위해 애써주신 대한사격연맹 김은수 회장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허성무 창원시장님, 황기철 국가보훈처장님 그리고 선수와 임원 여러분도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홍범도 장군을 고국에 모시고 홍범도 장군의 이름을 건 최초의 사격대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올해 광복절에는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 장군의 귀향이 이뤄졌습니다. 일제에 항전하기 위해 조국을 떠난지 113년, 이역 만리 카자흐스탄에서 잠드신지 78년만에 장군의 생전 소원대로 독립된 고국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홍범도 장군은 의병장이 되기 전 호랑이 잡는 포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을사조약이후 1907년 일본이 '총포 및 화약류 단속법'을 시행하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총기를 회수 하려고 하자 홍범도 장군은 이를 거부하고 산포수들을 모아 의병대를 결성했습니다. 홍범도 부대는 함경도 일대에서 대대적인 유격전을 벌였고 '나는 호랑이'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일본군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머슴으로, 군대 나팔수와 식객승, 포수를 전전했던 평민 출신 의병장이자 의병장 출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 홍범도는 나라의 도움을 단 한번도 받지 못했지만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끝까지 싸웠습니다. 투쟁과정에서 가족을 모두 잃었지만 끝까지 동료들을 다독이며 봉오동·청산리전투 등 독립전쟁의 승리를 이끌었던 홍범도 장군을 통해 평범함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의 정신과 가치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올해 첫 번째로 개최하는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를 통해 포수출신 홍범도 장군을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사랑받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대회에 참가한 선수에게도 어느 때보다 뜻 깊은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그 동안 흘린 땀과 노력의 결실을 맺는 대회가 될 수 있게 모두를 응원하겠습니다!

홍범도 사격대회 화이팅!



· 2021년 보내 주신 정성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

임원 연회비 납부현황 (납부일 순)

최 윤 최익훈 이경철 홍성종 채예진 부윤경 이명우 조승문
조태수 홍이표 홍순계 김수송 김 찬 김태원 김우진 안태호
김진형 박석봉 문현군 정광균 이재호 정보현 김용환 황원섭
홍재구 홍성덕 손양호 유 용 유정배 김준목 한승관 김경호
유희태 우원식 김종욱 엄윤상 송영운 정우기 이상옥 노정래
제종길 오세중 정내하 한동건 오현석

임원명단

이 사 장 | 우원식(국회의원)
명예 이사장 | 이종찬(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건립위원회 위원장)
부 이 사 장 | 황원섭(신흥무관학교기념사업회 공동대표)
감 사 | 박형상(변호사/前 서울중구청장)
상 임 이 사 | 홍순계(前 IBK연금보험 상근감사위원)
사 무 총 장 | 한동건(취태백자원개발 대표이사)

이사

강호형 (주)KC COTTRELL 감사
김경호 대구광역시자문대사/前 주러시아 대사관 정무공사
김수송 (주)이음컴퓨터서비스 대표
김양진 BC카드 상임이사
김우진 K잡스 대표이사
김용환 前 한남대 부총장
김준목 (사)혁신경제 이사장
김진형 (사)벤처기업협회 상근부회장
김 찬 한국사학진흥재단 사무총장
김태원 NH 증권 부사장
김현권 前 국회의원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김형상 조이 세무회계 대표
남인순 국회의원
노정래 (주)건화 감리CM본부 사장
류병균 평화전략연구소장
문현군 한국노총부위원장
박드미트리 P&TEC 농업조경법인 대표
박석봉 前 육사 교수부장

정보현 노원 소상공인협의회 감사
정수진 하나카드 자문위원 / 前 하나카드 대표이사
박완주 국회의원
부윤경 삼성경제연구소 부사장
서경석 현대건설 부사장
석순용 특허법인 신세기 대표
손광춘 건축업
손양호 前 대한불교조계종 중앙박물관 후원회장
안태호 한국전기감리협회 부회장
오세중 대한변리사회 회장
위성근 국회의원
유 용 서울시 의원
유정배 대한석탄공사 사장
이경철 노원구 의회 의장
이명식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
이명우 평안남도 지사
이미자 前 종로구 의원
이승중 네무스텍 대표
이재호 한국리싸이클링 대표

임태성 (재)서산복지재단 이사장
정광균 (주)미르나인 대표
정내하 (주)미네랄하우스대표
제종길 (사)도시·인·숲 이사장 / 17대 국회의원
조승문 킨텍스 부사장
조태수 (주)다현커뮤니케이션즈 대표
채예진 대한고려인협회 부이사장
최 윤 E3플랜비 대표이사
최익훈 한국환경공단 물환경본부장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
한승관 대한변리사회 회원이사
한왕기 제40대 평창군수
홍성덕 前 주독일한국대사관 공사
홍성종 남양홍씨 남양군파대종중회 회장/토금산업 회장
홍의락 前 국회의원
홍이표 하이리빙 대표
홍재구 당정사적보존회 회장
홍종표 강동수산 대표이사

CMS 회원 회비 입금현황 (가나다 순)

강도연 강미혜 강석령 강지연 강태영 고형오 구자룡 계민경 권석중 권수정 권영희
권재석 김거성 김경애 김관표 김다영 김대영 김대환 김도식 김미선A 김미선B 김미자
김민경 김사엽 김상우 김석진 김선자 김성미 김성순 김성애 김성현 김수오 김신애
김양미 김영순 김영진 김옥찬 김용경 김우진 김윤미 김재현 김정식 김종철 김준수
김준영 김창관 김창환 김철순 김태원 김학필 김한희 김한백 김현수 나명현 나홍섭
노두섭 노용기 맹진규 문삼영 민기식 민병훈 박국진 박규만 박기수 박기호A 박기호B
박도산 박미혜 박성철 박선원 박성복 박은용 박점조 박조수 박준영 박지호 박태근
방은정 배규식 배영실 배효연 백장현 서 민 서양원 석진경 석혜경 설정선 손여록
손현상 송국영 송정화 신동혁 신선준 신수봉 신승관 신원철 신재면 심상걸 안상환
안선중 안영수 안영현 안태일 양달막 양민숙 양시모 엄기인 엄병용 여상연 오연근
우문식 유봉식 유정은 윤여각 윤진희 이기환 이덕철 이명수 이미숙 이병국 이상길
이상진 이상미 이수연 이순자 이승룡 이영란 이영희 이우업 이원규 이원정 이원형
이유창 이윤기 이은영 이정원 이정화 이주열 이주용 이준호 이종달 이지연 이지선
이태준 이태훈 이형란 이현주 이형철 임현문 장승희 장영진 장현우 전광출 전부선
전성배 전준선 전형범 전홍기 정기일 정동준 정두영 정병훈 정성관 정영운 정윤미
정은숙 정인택 정준수 정지국 정현석 제성수 제옥경 조국환 조봉현 조영욱 조영익
조현태 지애숙 지영순 지예은 지현주 채인목 천상영 최성우 최재호 최향수 하기호
한동진 한영우 한재원 허양순 홍광기 홍영만 홍전표 홍정희 홍희령 황덕순 황선익
황종섭 황희연 JIN CHUNXING (사)한국마트협회 (주)비티에스웨스턴

신임이사

서정호 무주살림연구소 대표이사
엄윤상 법무법인 드림 대표 변호사
손영훈 지앤에이프라이빗에쿼티(유) 전무
송영운 더스페이스(주) 대표
정우기 청강문화산업대 교수
김종욱 한살림편당(주) 대표이사
유희태 일문구의사선양사업회 회장

| 후원안내 |

신한은행 100-027-188760 (사)여천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 가입 문의 |

김현식 사무국장(02-784-3601) www.hongbumdo.org

